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기는 쉬우나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8일) 2022년 7월 6일 수요일



독도는 우리 땅! 진각종은 8월 29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3년만에 개최한 회당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실내 공연장으로 장소가 변경돼 열렸다. 사진은 진각종 청년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있는 모습. 〈현장기사 5면〉 울릉도=김주일 기자

해방 후 격변기서 불교 변화하려 했다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② 출범 과정
③ 출범 이후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2년 통합종단의 출범은 불교 최대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적인 성립과 발전 기틀을 세운 토대로 평가된다. 동시에 현재 한국불교의 한 축인 한국불교태고종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다. 한국불교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역사적 사건은 당시 정치 · 사회, 불교계 내부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통합종단 출범이라는 역사성은 현재의 한국불교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을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다.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그 배경과 흐름, 평가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고, 불과 1년이 지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군부쿠데타)가 발발했다. 특히 군사정변은 통합종단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불교계는 비구승과 대처승으로 양분돼 수년간 전국 주요사찰들을 중심으로 쟁탈전이 반복되는 등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비구 · 대처 갈등은 1945년 해방 이후 불교계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불교계 주도세력은 대처승 측이었다. 그러나 일본불교 잔재를 걷어내기 위한 비구승 측의 정화운동 역시 거세게 일었고, 정치 · 사회적으로도 예측불가능한 변화흐름이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비구승 측은 확고한 불교정화 원력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활용해 1955년 이승만 정권 당시 불교조계종을 출범한 데 이어,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통합종단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비구승 측은 1955년 8월 조계사에서 개최한 전국승려대회를 계기로 불교조계종을 창립했는데, 이는 현 조계종의 기초가 된 종단으로 불교정화운동의 분수령에 다름없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정화 유시 등을 통해 비구승 쪽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승려대회 이후 조계종단을 구성하고 불교정화의 완성을 향해 가던 비구승 측의 흐름은 4.19혁명을 계기로 제동이 걸린다. 비구승 측에 힘을 실어주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대처승 측의 반격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처승 측은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유시가 불법이며 이에 기인한 불교정화운동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처승 측은 조계종단을 '관제불교단체'로 규정하고 조계사 등 전국 주요사찰들을 되찾기 위한 소송과 점거에 착수했다.

특히 대처승 측은 승려대회 전날 문교부 중재로 열린 '사찰정화대책위원회' 결의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정화의 완전한 종결을 바라는 비구승 측과 이승만 정권 당시 빼앗긴 사찰은 물론, 불교계 주도권 탈환을 염원하던 대처승 측의 향방을 가름할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4.19혁명 이후 조계종은 불과 1년만에 5.16군사정변으로 또 한 번 폭풍에 휘말렸다. 군사정변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당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정부와 국회, 대법원을 모두 무력화해 박정희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조계종은 긴급히 대응책을 모색하고 불교정화와 5.16 정신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쿠데타 주역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모색에 나섰지만 군부는 정화로 인한 일련의 상황들을 '분규'로 규정했다.

박정희를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종교단체심의회를 통한 종교단체 등록제 시행을 공포한 데 이어,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양측의 통합을 요구했다.

정부의 방침은 확고했다. 선(禪) 중심의 비구승과 교(敎) 중심의 대처승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기본으로, 비구 · 대처 동수의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종헌을 만들고 중앙종회를 구성해 새로운 종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단일종단 유지 △양측 모두 한국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한국불교 대표종단은 쌍방 대표로 구성된 신종회에서 제정한 새로운 종헌으로 성립한다 등으로, 사실상 1962년 출범한 통합종단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담겼다.

대처승 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비구승 측인 조계종은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문교부는 재차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불교재건위원회 조례안은 1955년 이후 300여 건에 달하는 비구 · 대처간 소송을 강제취하하는 방안을 전제로 수차례 협의 끝에 양측의 동의를 끌어낸다.

비구 · 대처승 간 지속된 갈등
사회 변화와 맞물려 혼란반복
불교정화 양면에 대한 평가도
4.19혁명 · 5.16정변 등 전환점
정부 주도에 의한 변화도 주목

20돌 맞은 템플스테이 홍보 · 공익사업 확장

정치 · 연예계 인사 16명
문화사업단 홍보대사 위촉
서남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의료인 업무환경 개선 노력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서울시립공공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홍보와 사회공익사업 확대에 나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로는 템플스테이 및 불교계와 꾸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前 차관과 김갑수 템플스테이 전문위원(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비롯해 대표 불자 정치인 주호영 제21대 국회의원, 불자가수 김흥국, 조항조, 배우 정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등 16명이 위촉됐다.

위촉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수여했으며,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위촉된 홍보대사들에게 일일이 템플스테이 뱃지를 달아줬다.

위촉된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 소임을 수락해주셔 감사하다. 이제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게 하려고 한다"며 "위촉된 홍보대사들께서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9월에는 통도사에서 외교사절, 외신기자를 초청해 체험 AGAIN 2002 행사를 열고 11월에는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촉된 홍보대사들께서는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한 층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연예인 홍보대사인 김흥국 씨와 정찬 씨도 템플스테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뜻을 밝혔다. 김흥국 씨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에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게 없었는데 스님들이 사찰의 문을 열어줘 템플스테이가 시작됐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동이었고, 그런 템플스테이 20주년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정찬 씨는 "한국 대표 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에 감개가 무량하다"며 "스케줄이 맞는다면 자녀들과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28일에는 문화사업단과 서울 서남병원(원장 장성희)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자산을 활용해 공공의료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단은 서남병원 종사자 대상으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 체험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남병원은 서울 시내 사찰 공공의료 지원과 템플스테이 계간지에 건강칼럼 게재 등 의학자문을 약속했다.

서남병원 고종훈 진료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진이 지쳐 있을 때 문화사업단에서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료 소외계층의 공공의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서울시 의료복지 활성화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남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지에서 활동하는 의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찰음식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명 스님 "종단 발전 위해 수행가풍 확립"

관음종 6월 24일 신임 총무원장 임명식 개최

노덕현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성사서 종도 운집 하에 봉행
7월 14일 취임식 및 회견 예정
법성보살 95세 탄신다례 열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은 6월 24일 창녕 법성사 대광명전에서 총무원장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임명받은 신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총무원장 임명은 법성보살 은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바른 믿음의 수행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큰스님을 잘 모시면서 새로운 종단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법명 스님은 특히 수행 종단으로 가풍 확립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최근 종단협 한 · 베트남 수교 행사 동참으로 종단 발전 방안 수립에 막 나선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 하심으로 나서겠다. 종단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음종 신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978년 3월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득도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낙산 묘각사 낙가선원에서 6안거를 성만했으며, 1979년 12월 백상 경조 스님을 전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1년부터 옥천 백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스님은 1989년 10월 10일 영산당 홍파 스님에게 건당했으며, 이후 1994년 1월 10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교무부장, 2000년 1월 28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중앙종회의원, 2005년 5월 26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법성사 주지, 2006년 1월 20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부원장, 2008년 1월 18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포교원장, 2011년 1월 1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중앙종회의장, 2018년 12월 18일 관음종복지재단 이사장, 2021년 8월 3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으로 취임해 그동안 관음종 안팎의 대소사를 관장했다.

스님은 '깨달음 총론' 발간도 총괄했으며, 저서로는 수필집 〈바보산승 이야기〉(2014년 나무)가 있다. 또 대한민국 한빛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교정봉사, 자랑스런한국인대상 교정봉사 등을 수상했다.

스님은 "스님과 대중들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 아래서 믿고 협력하여 종단의 발전에 함께 나서자"고 발원하며 "법성 보살의 뜻을 받들어 수행의 미진한 부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종정 홍파 스님(오른쪽)이 법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관음종 교육원장 도선 스님, 호법원장 경원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주 불명사 도각 스님, 관음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혜정 스님 등 관음종 소임자 스님과 각 사찰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법무부 대전교도소 사회복지 및 교정협의회 관계자, 최윤섭 대한불교관음종 신도회장, 이경자 법성사 신도회장, 법성사 수경화 보살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임명식은 법성보살 전 삼배와 비로자나불 십신불 봉독, 상축 등으로 진행됐다. 헌다, 헌향, 헌화와 함께 법성보살 생전육성 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총무원장 법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명 스님은 관음종 종회의장도 맡고 있다. 수행의 에너지를 모아 종단이 화합하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법성보살 설법집에 비로자나 법신과 법음으로 모두가 청정하고 걸림이 없게 된다고 했다. 내 마음에 그릇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걸림이 없고 계를 지키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성보살 탄신 95주년 다례법회도 진행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6월 2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 20만 달러를 전달하고, 난민 안녕을 기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20만 달러 전달

상월결사, 6월 27일 주한 대사에
본지 협업, 8월 12일까지 캠페인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구호 지원금을 전달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6월 27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전쟁 난민을 위한 기부금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한화 2억 6000만원 상당으로 조계종과 상월선원이 주최하고 아름다운동행이 본지와 주관해 3월 14일부터 진행한 긴급 모연 캠페인에서 조성된 기금 중 일부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우리나라도 잦은 전쟁으로 고통 받은 경험이 있기에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성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부대중이 모금에 동참했다"면서 "한국불교와 상월결사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난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승 스님과 원명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드미트로 대사는 "전쟁 이후 한국에서 접한 경험들로 한국 국민들 마음이 우크라니아 국민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달식 전, 상월결사와 인류평화를 위한 방생순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드미트로 대사는 "정진과 기도는 세상의 평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감동의 뜻도 전했다. 그러면서 합장 반배하며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달식 후에는 봉은사에서 준비한 사찰음식으로 공양하며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기도 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본지와 협업, 8월 12일까지 긴급 모연 캠페인을 진행한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전국비구니회, 2년만에 전국 운영위원 한자리에

전국운영위 19지회 130여명
6월 27~28일 경주서 워크숍
역량 · 원력 모으는 소통의 장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6월 27~28일 경주 황룡원에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19개 지회 위원들이 모두 모여 대면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28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운영위원회는 그간 코로나팬데믹으로 모든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한 바 있다.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그동안 전국 19지회 소속의 130명 운영위원회는 전국비구니회의 원만 운영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이어왔다"며 "그럼에도 오늘 워크숍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2019년 11월 운영을 시작한지 2년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운영위원 스님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모임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6월 27~28일 경주 황룡원에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스님은 "운영위원회는 본 워크숍 이후 남은 운영기한인 2023년 11월까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앞둔 주요행사들의 원만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12대 집행부가 소임을 원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운영위원 스님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향후 1여년간 국내외적인 중요한 행사들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올 9월 15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비구니종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데 이어, 10월 18일 회관 20주년 기념행사, 2023년 6월 23~29일 세계여성불자대회 '샤카디타 한국대회'를, 9월에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치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러 주제의 강좌도 함께 진행됐다.

문광 스님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교와 수행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데 이어, 김태균 원장이 '세계화시대 한국 비구니스님에게 요구되는 패러다임 이해'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국운영위원과 함께하는 제21차 수행결사에서는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칠순 불자 부부, 승려복지 500만원 기부

6월 21일, 사무국 직접 방문
"노후 걱정 없는 수행" 발원

불자 부부가 칠순을 앞두고 승려복지 기금을 후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승려복지회 사무국에 한 노부부가 방문했다. 이들은 7월, 칠순을 맞은 조창희 · 김옥배 불자 부부.

이날 500만 원을 후원한 부부는 "칠순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뜻 깊은 일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공양을 통해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부는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큰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10대 사업 중 하나인 불교 요양병원 · 요양원 불사도 하루빨리 이루어져 노환이나 병고로 사찰 내 돌봄이 어려운 스님들을 모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한 김옥배 불자는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신도로, 불자로서 신행생활과 포교사로서 포교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부터는 매월 1만 800원씩 승보공양도 후원하며 스님들을 외호하는 재가불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사찰 백중기도 입재…시민들은 연꽃으로 힐링

6월 25일 기도입재…7~8월 연꽃축제 개최

송지희 · 노덕현 기자

조계사 · 봉은사 등 연꽃장엄
백중 49재 기도도 함께 진행

〈화엄경 탐현기〉에서는 연꽃이 향(香) · 결(潔) · 청(淸) · 정(淨)의 네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보살이 앉아있는 자리를 연꽃으로 만들어 연화좌 또는 연대라고 부르는 것도 번뇌와 고통과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는 사바세계에서 고결하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의 속성을 비유한 것이다. 동시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한 목련존자의 효심을 담은 상징이기도 하여 백중기간 연꽃축제가 함께 열린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연꽃축제가 펼쳐진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찰을 찾지 못했던 불자들의 발걸음도 더없이 가벼워 지고 있다.

가장 먼저 연꽃축제를 연 곳은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혔던 산문을 활짝 연 의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연꽃축제'로 이름 붙여졌다. 6월 22일 개막에 이어 6월 25일 백중기도 입재가 이뤄졌다.

주지 원명 스님은 백중입재 법문에서 "나와 나의 부모, 가까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물코처럼 촘촘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과 법칙"이라며 백중 49일 기도와 7 · 7재 천도재 이유를 밝혔다.

6월 26일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일요법회에 법사로 나서 '효'에 대해 설했다. 범해 스님은 "인간은 모두 부모님이 생명을 넘겨줌으로써 태어나게 되고 탄생과 동시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심지어 현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전생을 거쳐 오며 만난 전생의 부모들의 은혜도 생각하며 공양을 행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중기도와 함께 사찰을 찾은 이들은 연꽃 장엄을 보며 잠시 삶의 어려움을 잊었다.


한국불교 1번지인 서울 조계사는 6월 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중 49재 기도 입재와 함께 하안거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를 개막했다.

봉은사 백중기도는 8월 12일 7재까지 매주 금요일 49일간 진행되며, 연꽃축제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한국불교 1번지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중 49재 기도 입재와 함께 하안거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를 개막했다. 백중기도 입재법회가 진행된 이날 조계사 앞마당은 연꽃을 품은 화분으로 가득했다.

한낮 뜨거운 태양빛에도 불자와 시민들은 푸른 연잎과 분홍빛 봉오리를 감상하며 화분 하나하나가 이어진 연꽃 법계도를 따라 걷는 방식으로 여름을 알리는 연꽃 향연을 만끽했다. 개막식은 연꽃 이운으로 시작됐다. 부처님 전에서 연꽃 법계도 중앙의 연꽃부처님께로 이운된 수련은 주지 지현 스님을 거쳐 연꽃부처님이 안치된 수중연화대에 봉안됐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투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을 설하며 일곱걸음을 걸으셨고 그 한발한발에 연꽃이 피어났다"며 "또한 연꽃은 혼탁한 진흙에서 맑은 꽃을 피워내 청정과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연잎은 비가 오면 자신이 받을 만큼만 받고 그 이상이 모이면 비워낸다. 욕심을 내어 이상의 물을 담아내면 대궁이 꺾이게 된다"며 "우리 대중들도 욕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를 비울 줄 아는 연의 이러한 지혜를 배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사 연꽃축제는 8월까지 이어진다.

연꽃으로 유명한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도 6월 25일 백중 49재에 입재했다. 봉선사는 7월 23일 제20회 연꽃축제를 연다. 연꽃축제날에는 글짓기 · 그림그리기 대회도 유치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촌 봉원사(주지 원허)도 8월 12일 백중법회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연꽃축제는 개화시기에 맞춰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단일 연꽃축제로는 최대규모인 회산백련지 무안군은 7월 21~24일 코로나 기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무안연꽃축제를 대면으로 진행한다. 부여군 또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여서동공원 궁남지 일원에서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연다.

법화종, 교구 · 분한 구제안 다룰 중앙종회 개회

6월 27일 제107차 임시회 개원
정식 총무원장 체제서 첫 종회
7월 6일까지 10일 회기로 진행
종단기틀 강화할 다수안건 논의


법화종 중앙종회는 6월 27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7차 임시회를 개회했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이 오랜 종단 혼란으로 위축된 지역교구를 활성화하고, 분한이 상실된 종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입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기존 교구종회의원 선출기준인 50개 사찰을 25개 사찰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종도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할 임시회를 개회했다.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서안)는 6월 27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7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0일 회기로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 체제의 정식 총무원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종회라는 점에서, 종단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입법발의됐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애종심이 종단 정상화에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종회는 종도들을 구제하고 종단이 진정한 의미의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안건에 대한 건강한 토의와 원만한 진행을 통해 종단이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7차 임시회는 재적인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했다. 개회를 선언한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은 "이번 종회는 상당히 뜻 깊고도 무거운 자리"라며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배려로 청사 4층에 중앙종회의원실이 개소했고, 종단의 향방을 좌우할 일부개정안과 각종 법안을 다뤄야 하는 임시회가 10일간 이어진다.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 일부개정의 건, 종법 일부개정이 건, 특별법 제정의 건, 종무질의의 건, 각 교구 대중공사 동참의 건, 안정사 되찾기 결의문 채택의 건, 기타안건 등을 다룬다.

개회 첫날 첫 안건으로는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지만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일부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종헌 제6장 중앙종회 항목의 제26조 종의회의원 선출 기준과 제28조 임시회 소집에 대한 기준을 종단 현실에 맞게 변경하자는 취지다.

회의결과 종헌의 기준은 25개 사암으로 하되 20대 중앙종회가 구성된 후 종법에서 세부사항을 다루는 방안을 단서조항으로 가결했다.

제28조는 '의원 3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기존 조항을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한다'로 수정해 최종 통과했다. 연관법으로 종헌 제10장 교구종무원 항목의 제51조의 50개 사암을 25개 사암으로 수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대전=송지희 기자

불교사회硏, 6년 성과 담은 보고서 발간

2016~2021년 성과물 집약
"불교적 가치 사회적 실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최근 6년간 진행한 각종 연구 성과물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근 발간된 '불교사회연구소 종합보고서2〈사진〉'(이하 종합보고서2)는 2016년 발간한 '불교사회연구소 5주년 종합보고서'에 이어 2016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연구 성과물을 집약한 것이다. 종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연구된 성과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거나 혹은 중복으로 연구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자와 종책수립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추진될 각종 연구 지표로 삼기 위해 제작됐다.

보고서는 제1부는 주요활동, 제2부는 주요 연구성과, 제3부는 불교사회연구소 발전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 연구' 등 23건 연구 성과물과 '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 등 25건의 단행본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주요 성과에 대해 △종책분야로 중장기 전략과제 측면에서의 과제 △사회분야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보편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 △교과서 분야를 특화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분야 개척 △호국불교문화는 '현대사회와 불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종책을 생산하고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을 '가족'이나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산 이듬해부터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고 있는 환경본찰(環境本刹) 강릉 현덕사가 '제1회 반려동물·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 못지않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의 잊지 못할 교감 순간, 함께 나누고픈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별 순간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만들고 나눈 사랑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식물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지 현 종

주제 및 형식: 반려동물과 식물과 관련된 글이면 주제, 형식 모두 무관
분 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한글포인트 10, A4용지 2매 내외) ※반려동물 및 식물 사진(사진 3장 이내)
지원자격: 반려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31일 까지
접 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hj569569@gmail.com)
수상자 발표: 2022년 9월 20일(현덕사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 상 식: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1시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에서 함께 진행
시 상: 대상(1명,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1명, 상금 70만원), 우수상(2명, 상금 50만원씩), 장려상(3명, 상금 10만원씩)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별부상으로 '반려동물 천도재' 무료 봉행 예정

※ 현덕사는 수상작품으로 책 제작, 전시, 영상 제작 등으로 향후 활용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삼산리, 현덕사) 문의 (033)661-5878 www.hyundeoksa.or.kr



“사경 공덕 담은 탑 보며 신심 증장을”

천태종 삼룡사 6월 26일 ‘사경탑 및 사경봉정법회’ 봉행

코로나19 기간 신도 사경 수행
2000여 명 동참, 3000권 모아
7층 높이 사경탑으로 문화불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 삼룡사에는 독특한 탑이 있다. 탑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사경탑(寫經塔)’이다. 삼룡사 신도 2000여 명이 1년간 한글자씩 써내려간 사경집 3000권으로 이뤄진 국내 유일의 유리사경탑이다.

서울 삼룡사는 6월 26일 ‘지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경탑 및 사경 봉정 법회’를 열고 사경탑을 공개했다.

유리 사경탑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독특하다. 2021년 2월 삼룡사로 부임한 무원 스님은 코로나로 법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명락사에서 다문화가정 포교 일환으로 사경 교육을 진행했던 스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찰에 나오지 못하는 신도들에게 사경 수행으로 정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스님은 신도들 각 가정에 7권짜리 〈법화경〉과 〈육방예경(六方禮經)〉 〈무량의경(無量義經)〉 등의 사경집을 보냈다.

무원 스님은 “사찰에 나오지 못한 신도들이 우울증을 호소했다. 이런 신도들의 심리를 사찰에서 보듬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가정으로 사찰에서 경전을 보내주니 고맙다는 말이 많았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사경할 때 개인 뿐만 아니라 국난극복을 위한 염원으로 담아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삼룡사 신도들은 사경으로 코로나 기간을 보냈다. 사경을 마친 신도들이 삼룡사로 다쓴 사경집을 보내왔다. 올해 초부터 사경을 마친 사경집들이 삼룡사에는 쌓여갔다.

무원 스님은 “2000여명이 1년간 수행한 공덕이 쌓인 것”이라며 “시대적 애환이 녹아 있는 사경집을 보니 이 원력을 문화불사로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그동안 사경집 봉안은 석탑과 목탑, 목불 등에 이뤄졌다. 내부를 볼 수 없었다. 무원 스님은 “다른 이들의 신심을 보는 것 만으로도 또 다른 감동, 신심 진작이 된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신심마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이러한 불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의 신심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이자 삼룡사 주지인 무원 스님이 사경탑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유리 사경탑은 단청 전문가인 이경열 씨가 맡았으며, 사경집 규모에 맞는 7층으로 구성됐다. 사경집 3000권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탑 골조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됐고, 각 면은 투명유리로 둘러싸 내부가 보이도록 했다. 각 탑의 구성은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현대적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이기도 한 무원 스님은 “종단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중심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사경 수행도 적극 장려해갈 예정”이라며 “사찰에서의 염불정진과 함께 가정에서의 경전 사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찰과 가정의 수행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계속해서 신도들의 신심을 드러내고 서로 찬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신도들이 사경탑을 보며 코로나 기간 신심을 떠올리고 더욱 마음을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3기 모집



조계종 포교원은 7월 8일까지 불교크리에이터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웹툰과 블로그, 영상, 틱톡, 유튜브 쇼츠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로 불교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불교크리에이터 3기에 도전하려면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창작역량을 확인가능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팀당 100만원의 콘텐츠 제작과 홍보 창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기 불교크리에이터로 위촉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본인 또는 팀 SNS 계정에 매달 1회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한다. 영상과 폰트, 사운드 등 콘텐츠 저작권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다고 포교원은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구 불광사 지역미래불자 장학금 전달

대구 불광사(주지 지안)가 지역 출신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6월 28일 교내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회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불자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대구 불광사는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약정했다.〈사진〉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역 사찰과 동국인이 인연을 맺는 중요한 행사”라며 “1000만원 장학기금 이외에도 1억 원 장학금을 약정했다. 후원해준 신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예비 포교사들의 군포교 열정 ‘눈길’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6월 26일 25사단 등서 현장교육

군부대 현장 견학하고
포교원력 새롭게 세워

제27회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서 1차로 합격한 예비포교사들이 일선 군 법당에서 군포교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군법회 진행 현장교육을 받고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2팀 20여 명은 동부총괄팀장 윤석봉 포교사와 동부군5팀장 김순자 포교사 안내에 따라 6월 26일 파주 육군 25사단 국사봉 대대 보리수법당의 일요법회에서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동부 군5팀 포교사들의 법회 진행을 참관했다.

군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5월부터 군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장병들이 일요일을 맞아 휴대폰 보기를 멈추고 불교 신행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법회 전날은 한국전쟁 추모일로 군부대에서는 훈련이 진행됐다. 이에 포교사들은 장병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와 피자 같은 간식을 준비해 제공했다.

파주 육군 25사단의 경우 조계종 제3대, 4대 종정을 역임한 고암 스님 생가터가 있는 곳이다. 이에 예비포교사들은 법회 참관과 함께 2021년 4월 문도회가 조성한 용성고암부도탑 및 평화공원 참배와 부도탑비 탑돌이도 진행했다.

또 예비 포교사들은 육군 25사단 군법당 호국비룡사도 방문해 불자인 사단장의 환영을 받고 주지 금조 스님 법문을 듣고 참관 소감도 나눴다.

호국 비룡사 주지 금조 스님은 이들에게 “불교대학을 이수하고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포교사가 되면 어린이 청소년 교정시설과 군법회 등에서 직접 포교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군종교구에서는 출가자 감소 등으로 군승과 군종병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포교 활동에 힘껏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여러분이 사단 법당과 대대급 법당을 보셨듯이 현실적으로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군포교에 앞장서 불교 미래를 밝히는데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비 포교사들이 군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포교사들은 군포교 현장교육을 마친 뒤 “군 장병들에게 필요한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4월 치러진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와 교육, 면접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단은 총 13개 군팀 약120여명의 일반포교사들이 서부전선(경기도북부지역) 대대급부대의 법당에서 군종교구각 군단, 사단 법당의 지도를 받아 일요일 군 법회활동과 민간성직자활동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의왕 청계사 난치병환아 돕기 나서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와 한국불자가수협회(회장 이창환)는 6월 11~12, 18~19일 등 총 4회에 걸쳐 ‘2022 청계사 난치병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청계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여명의 불자가수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청계사 신도들을 비롯한 지역불자들은 음악회 참여와 함께 모금 캠페인 동참으로 사회적 실천에 나섰다. 불자가수협회는 이날 음악회 수익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사단법인 청소년마이트리(이사장 성행)에 전달했다. 성행 스님은 “우리 주위에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적지 않다”며 “보현행원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동행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회당축전, 울릉도를 '문화'로 수놓다



진각종은 6월 29일 울릉도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2022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회당문화축제 하이라이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서 국카스텐 밴드의 공연에 울릉도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진각종, 6월 28~29일 '2022 회당문화축제' 개최

6월 29일 독도아리랑 콘서트 '백미'
국카스텐 등 유명가수 공연 호응↑
주민·관광객 어우러져 콘서트 열광
명실상부 지역 대표 축제 자리매김
'진호국가 무진서원 불사' 행사도
원행 스님 등 종단 수장 첫 참석해

울릉도=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질러!"

6월 29일 밤 10시 경북 울릉군 울릉 한마음회관. 지상 3층 규모 공연장은 '나는 가수다'와 '복면가왕'으로 유명세를 떨친 국카스텐 밴드 보컬 하현우의 선창에 관객석에 꽉 들어찬 500여 주민·관광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 치며 리듬에 몸을 맡겼다. 진각종이 마련한 '2022 회당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의 마지막 장면이다.

날씨만 맑았다면 도동항 특설무대서 울릉도 밤바다를 바라보며 1000여 명 이상이 함께 즐길 수 있었겠지만,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진각종 측이 부득이하게 울릉도에서 가장 큰 공연장인 한마음회관으로 급히 장소를 옮겼다. 이 공연장은 평소에 400여 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지만, 이날은 복도에 앉은 사람까지 치면 500여 명이 넘었다. 공연시작 1시간 이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이 개종조(開宗祖)인 회당(悔堂) 손규상(孫珪祥)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첫 선을 보인 행사. 진각종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해를 거듭하며 종교색보다는 대종사의 고향인 울릉도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 앞서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6월 28일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올해 회당문화축제의 첫 행사인 '진호국가 무진서원 불사(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축제에 하이라이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1부 식전 행사와 2부 메인 공연으로 진행됐다.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도진 정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전국명품축제인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울릉도를 찾았다.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는 애국축제요, 울릉 아리랑과 울도선경가를 재해석하며 울릉도 문화를 섬기는 문화축제"라며 "회당문화축제가 내년에는 20회를 맞는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 열정, 감동이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신행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통해 "문화가 정착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구성원들과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당문화축제는 회를 거듭하면서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통해 울릉도의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회당문화축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울릉도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파사드 타악그룹 좋은친구들의 미디어 대북 공연으로 문을 연 2부 공연은 댄스크루 에어럴의 7명이 전설적 인기그룹 퀸의 히트송인 'Bohemian Rhapsody' 'Love Of My Life' 'Somebody To Love' 등 선율에 맞춰 강렬하고 인상적인 율동을 선보였다.



지역어린이집 원아들의 앙증맞은 공연.



울릉도 금강원을 참배한 종단협 회장단.

공연에는 지역 어린이집(꿈나무 어린이집) 5~6세반 원생들도 동참했다. 반짝이는 의상까지 갖춰 입고 열심히 율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객석에 앉아 지켜보는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공연의 대미는 국악가수 권미희와 국카스텐 밴드가 장식했다. 권미희 국악가수는 '배띄워라' '초혼' '진또배기'에 이어 앵콜송인 '홀로아리랑'으로 더욱 흥을 돋웠다. 특히 객석 맨 앞에 앉은 각 종단 총무원장들도 박자에 맞춰 손을 흔들면서 함께 공연을 즐겼다.

마지막 객석을 달군 것은 국카스텐 밴드의 몫이었다. '펄스'를 부르며 등장한 보컬 하현우는 '돌덩이' '걱정말아요 그대' '라젠카 세이브 어스' 등 내리 3곡으로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가왕의 매력을 흠뻑 발산하며 군중을 압도했다. 마지막 앵콜곡인 '한잔의 추억'을 부를 땐 전 관객들이 일어나 제자리에서 뛰고 팔을 허공에 내지르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열광과 감동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김다미(33) 씨는 "인터넷 기사와 포스터를 보고 우연히 오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다. 특히 국악 가수의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휴가 와서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됐다"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축제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도동항 인근 주민 최병만(53) 씨도 "문화혜택이 많지 않은 울릉도 주민들이 회당문화축제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6월 28일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축제의 첫 행사인 '진호국가 무진서원 불사(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번 축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단 수장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궂은 날씨였지만 독도를 품은 외딴 섬 울릉도는 문화로 하나가 됐다.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울릉도의 밤은 아름다웠다.

Interview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종조 탄생지 금강원, 울릉도 랜드마크로 조성"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제19회 회당문화 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앞두고 6월 29일 울릉도 대아리조트에서 차담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의미와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A 코로나19로 2년 동안 축제를 열지 못했죠. 그런 아쉬움을 담아 이번 축제의 슬로건을 '코로나 19를 넘어 희망을 노래합시다'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회복, 다시 시작, 그리고 새로운 서원'이라는 메시지를 축제에서 전하려 했습니다.

Q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아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를 시작한다.

A 금강원 성역화 불사는 이번 집행부의 핵심 사업이자 종조께서 항상 설하신 '진호국가불사'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올해가 종조 탄생 120주년, 내년이 열반 60주년이라서 성역화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역화 불사는 진각종 교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일반인들도 금강원을 참배한 뒤 숙박하며 힐링할 수 있는 숙박 시설도 현대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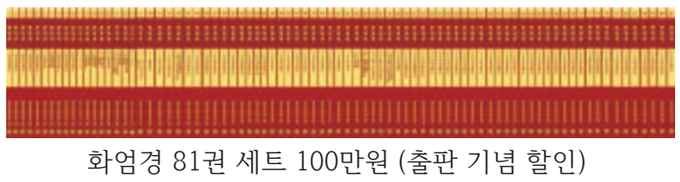
Q '독도 아리랑 콘서트' 무대에서 울릉지역 구전가요를 창작 재해석해 기증했다.

A 이는 울릉도 전통문화 복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16년 '울릉아리랑', 2019년 '울도선경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곡한 곡과 악보들을 모아서 울릉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당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결과물들이 쌓인다면 울릉군 문화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주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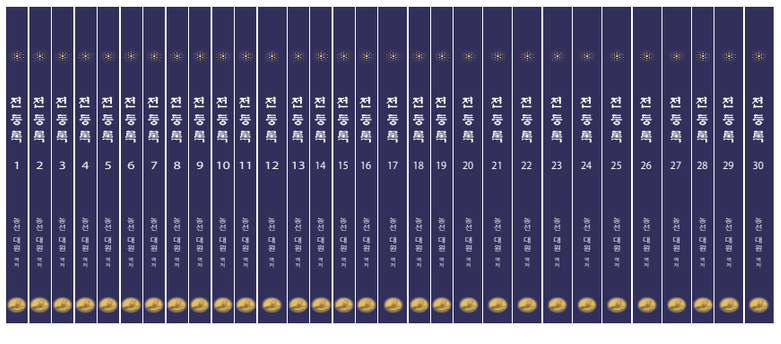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

“시비분별 다 끊어진 마음이 부처님 마음”

동명불원, 신임 주지 개당법회 봉행

교선사 원순 스님 주지 취임
불자 위해 쉬운 말 경전 풀이
오랜 주지 공석 안타까워 결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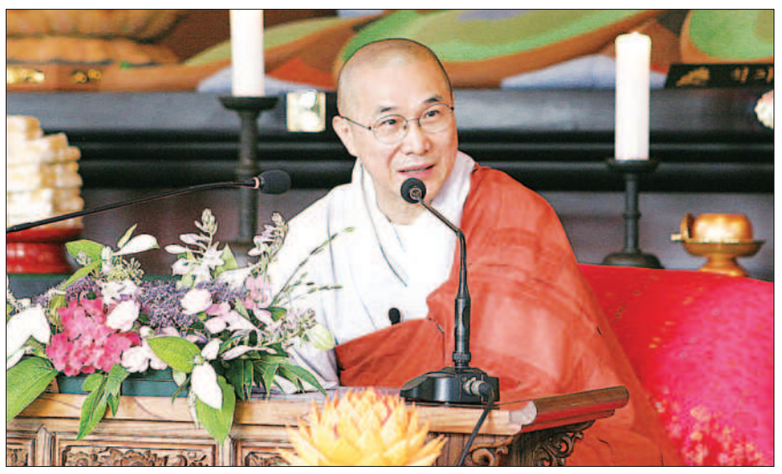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주지 원순 · 이하 동명불원)이 6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원순 스님의 취임식과 개당법회를 봉행했다.

개당법회는 신임 주지가 처음으로 사찰에서 설법하는 법석이다. 이번 개당법회를 통해 주지 원순 스님은 대중설법을 통한 경전 안내로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을 돕겠다고 서원했다.

법회에는 주지 원순 스님과 김경조 동명불원 이사장, 안수근 이사, 이욱태 이사, 조성두 이사, 성재곤 신도회장, 이상수 신도회 부회장, 이원옥 신도회 부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당선인, 조상진 부산시의원 당선인, 성현달 부산시의원 당선인, 박미순 남구 구의원, 이숙련 前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취임식에 이어 개당법회로 이어졌다. 취임식은 개식과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내빈소개, 신임 주지 수행이력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불자들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했으며 김경조 이사장과 성재곤 신도회장이 축사를 통해 주지직을 수락한 원순 스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개당법회는 청법가와 입정 이후 원순 스님의 법문으로 마무리 됐다.

원순 스님은 “무엇보다 주지라는 소임으로 불리기가 좀 어색한 면이 있다. 저를 마주할 때면 스님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경전을 그동안 쉬운 말로 풀어내는 불사를 해왔다. 대중들에게 앞으로 설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6월 29일 부산동명불원 개당법회에서 원순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원순 스님은 법문에서 “12분별이 사라지고 근심과 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다. 일체 시비분별이 다 끊어진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다.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빛을 가지게 되고 실상을 드러내게 된다”며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힘이 부처님의 지혜이며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하는 힘이다”고 당부했다.

김경조 이사장은 “새롭게 취임하신 원순 스님은 그동안 동명불원으로 와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정중히 사양하셨다. 주지 스님의 공석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셨고 오늘 법석을 열게 되었다”며 “우리 사찰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지 스님을 모시고 앞으로도 저희 동명불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재곤 신도회장은 “주지 공석의 장기화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원순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지 원순 스님은 한문을 어려워하는 불자들을 위해 우리글로 경전을 풀어쓰는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다. 주지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화합과 지역사회의 전법과 포교의 중심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순 스님은 198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3년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정혜사, 성전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94년 운성 스님으로 부터 강맥을 이어받았고 2001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행운문화상 역경부문을 수상했으며 2005년 조계종 총림 방장 보성 스님으로부터 전등 율맥을 이어받았다. 현재 조계종 편집위원,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 어록을 강의 중이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월암에서 안거 수행 중이다. 원순 스님은 한글 역경에 매진하며 〈함허 스님 금강경〉,〈육조 스님 금강경〉, 〈치문〉, 〈돈황법보단경〉, 〈진심직설〉 등 다수를 번역했다.

범어사, 선지식 6인 특강 시작

6월 28일, 태원 스님 ‘정토사상’ 특강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6월 28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을 주제로 열리는 선지식 초청 특강을 시작했다.

태원 스님<사진>의 ‘정토사상’ 을 주제로 시작된 첫 강의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자들이 교육관 강당을 가득 메웠으며 대면으로 만나는 선지식의 특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힘겨웠던 시간을 위로하고 대면으로 만나는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법열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후 유식과 선사상, 화엄 등 주옥같은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느꼈던 아쉬움을 마음껏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태원 스님은 정토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당부하며 정토의 의의, 제불정토설, 정토교의 위치 등 설명을 이어갔다.

태원 스님은 “정토사상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사랑하기를 바란다”며 “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고 내세의 꿈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은 6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6주간 매주 화 · 수 · 목요일 오후 2시에 범어사 선문화관교육관에서 진행된다. 태원 스님에 이어 원오사 주지 원오 스님이 ‘유식사상-마음의 본체를 이해하다’ 를 강의하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선사상-중국선과 한국선의 양상과 특징’ 을 설명한다.

이어 해인사 강주를 역임한 수진 스님이 ‘화엄사상-최고의 경전 대방광불화엄경의 이치를 읽다’ 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창 스님이 ‘계율-계율의 의미와 지계정신’ ,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한 월암 스님이 ‘선과 수행-조계종의 근간 간화선의 모든 것’ 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마무리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봉 대종사 40주기 추모 다례재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총 3300만 원 장학금 전달



경봉문도회(문장 원명)가 6월 25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 대종사 제40주기 추모다례재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前 영축총림 방장 원명 대종사를 비롯해 경봉문도회장 무애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추모 다례재는 종사영반, 헌향 및 헌다, 육성 법문, 장학금 전달, 인사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문도를 대표해 원산 스님은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화합하고 단결해 스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종사의 추모 다례재를 맞아 가르침을 새기고 경봉장학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도록 더욱 뜻을 모아 정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봉문도회는 이날 참석 대중을 위해 경봉 스님의 시문집 〈원광한화〉, 일화집 〈뭐가 그리 바쁘노〉, 소현 스님의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집 ‘경봉 선사의 선시 작품 연구’ 등을 법공양했다.

한편, 이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장학금 수여식’ 도 개최했다. 장학금은 통도사 재적 스님 가운데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도운, 관음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스님 21명에게 100만 원씩 2100만 원, 통도사승가대학 학인 스님 8명에게 50만 원 씩 400만 원, 통도사 보광선원,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비와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 지원금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쟁 비극 다시는 없기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UN전몰장병 합동위령재 봉행

6월 24일, 유엔기념공원 추모관
종교지도자·신자 200여 명 참석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가 6월 24일 유엔기념공원에서 ‘2022 유엔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재’ 를 봉행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매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11개국 2300여 명의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위령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묵념 △분향 및 헌화 △추도사 △종단별 추도식 △평화합창단의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으며, 7대 종교지도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박차귀 공동회장(천도교 여성회본부 회장), 황성민 목사(부산지방경찰청교회) 등 종교지도자와 신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산 스님은 추도사에서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현재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소중한 자리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한마음으로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부산 종교인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종교 학술 세미나, 공개강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서로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각 종단 유적지 순례, 종교인평화예술제, 생명존중 및 환경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대학입시전략 통한 포교 성료

2차 설명회, 8월 7일 오후 2시 개최

홍법사(주지 심산)가 6월 26일 경내 교육관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홍법사는 이번 대학입시 설명회에서 전문가의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입시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사찰이 ‘수능기도’ 라는 기도처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설명회에는 100여 명의 학부모가 동참했으며 대부분 불교와 인연이 없는 일반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복잡해진 입시전형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님이 내 자녀의 성적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대학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사찰에서 열려 생소하기도 했지만 불교가 좀 더 친숙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한나래평생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대치동 입시전문 컨설턴트로 알려진 황진환 아름미래 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의를 담당했다. 변화난측(變化難測)을 주제로 변화가 많은 입시상황을 설명하고 2023학년 대입전형의 변화와 전형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지 심산 스님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홍법사는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한다. 종교가 단순히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고자한다”고 말했다.

2차 설명회는 8월 7일 오후 2시 홍법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한나래평생교육원 사무국(010-8794-0514)으로 성명, 성별, 연락처, 학년, 주소를 문자로 남기면 자동 신청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나누우리, 미얀마 난민 어린이 긴급구호

6월 15~20일, 영양제 및 의약품 등 전달



국제구호단체 (사)태고종 나누우리(이사장 만우, 이하 나누우리)가 6월 15일부터 20일간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 매솟(Mae Sot)에서 난민 어린이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매솟 난민촌에는 2500여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누우리는 난민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포함한 의약품과 먹거리, 옷 100여 벌을 전달했으며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라면 200상자(6000개), 운동화 100켤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뱃지 500개를 함께 전달했다. 또 어린이 구호성금 5000달러를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의 두와라시 라 대통령 대행은 친서를 나누우리 이사장에게 전달하며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민툰(Mintoon)국민통합정부 국방심의관, 위(Yee)아동복지담당 사무관, 보급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나누우리와 함께했다.

만우 스님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에 많은 국민들의 단결된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기에 미얀마의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나누우리 회원들이 마련한 정성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민툰 국방심의관은 “지난해에도 나누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지원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따뜻함을 선사해주셨다. 미얀마 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나누우리는 지난해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 구입비 1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두와라시 라 미얀마 대통령 대행이 친서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자연정화 활동



영남알프스 신불산 일대서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와 전국농인불자모임(지도법사 일원)이 6월 26일 신불산 일대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봉사활동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부터 신불산 홍류폭포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정화활동에는 상임대표 천도 스님, 일원 스님, 농인불자 및 임원, 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천도 스님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보다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 욕심을 줄이고 채식으로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나눔이며 봉사이다”며 “불자 농인은 손으로 언어를 전한다. 오늘 그 손으로 자연을 보듬는 아름다운 활동도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비두손회 지도법사 일원 스님은 “오늘 활동은 농인 분들에게 함께 자연을 보호함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5대 종교인 '새만금 살리기' 한목소리

6월 18일 새만금 생명평화문화제 개최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만금 생태계 복원 염원 담아
2000년부터 장승 세우기 나서
법만 스님 등 참회문도 눈길



기도회에 참석한 불제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북 부안 새만금 해창 갯벌의 해수유통 확대와 갯벌 생태계 복원의 염원을 담아 5대 종교 성직자들이 생명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

6월 18일 전북 부안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열린 생명평화문화제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참당암 수좌스님들, 김기석 전북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천주교 전주교구 문규현, 김희인, 최종수 신부, 개신교 전북 예수살기 이봉원 목사, 원불교 환경연대 하상덕 교무, 천도교 한울연대 매암 이재선 동덕, 새만금살리기 공동행동 이정현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각 종교 성직자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창갯벌 원상복원 염원을 담은 장승 5기를 세운 후 종교별로 진행하는 새만금 생명 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천주교 전주교구 문규현 · 김희인 · 최종수 신부, 천도교 한울연대 이재선 동덕, 원불교환경연대 하상덕 교무, 전북 예수살기 이봉원 목사가 의례를 맡아 진행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기도문을 통해 "부처님 당신께서는 유정무정의 온갖 생명이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으나 저희들은 자연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함부로 했다"며 "맑디 맑은 우리의 심성을 찾지 못하고 심술궂고 욕심내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지난날을 참회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갯벌 생태계는 물론 주변 어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세계 잼버리대회를 핑계로 남은 갯벌마저 매립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갯벌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정현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2월 새만금 위원회가 해수 유통을 결정했지만, 대선과 지선에서 새만금에 다시 개발 바람이 거세졌다"며 "새만금 해수 유통 확대와 갯벌 생태계 복원으로 민선 3기, 새만금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지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5대 종교 성직자들은 해창 장승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만들자' 는 염원을 담아 2020년 6월 7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무더위와 장맛비, 눈보라 속에서도 20차례 기도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창 갯벌의 장승과 조형물은 2000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계 등에서 세우기 시작해 한때 수십 기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눈비에 쓰러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부안사람들과 환경단체, 종교인들이 최근 장승을 세워왔다. 5대 종교와 공동행동이 주관하는 새만금 해창 장승 세우기는 올해가 두 번째다.



화엄사 '제2회 요가대축제' 성료

요가를 통한 치유의 문화행사가 천년고찰에서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난 6월 18일 경내 각황전 앞 마당에서 '제2회 화엄사 요가대축제' 를 열었다.

'화엄 하나되다, 화엄 빛이되다' 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요가회 회원들과 일반인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인류의 대표적 건강운동인 요가를 통해 '지구촌 사람들의 치유와 화합의 장' 을 여는 특별한 축제였다.

덕문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전 지구촌이 우려하고 있는 우쿠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평화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해이다. 요가는 정신건강을 위하여 육체노화를 지연시키는 운동으로 건강의 대명사"라고 말하며, "요가축제를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불교연합회는 6월 27일 불지사서 법회를 봉행했다.

창원지역 발전위한 상생 기원 한마당

창원불교聯, 6월 27일 불지사서 선거 당선인 초청법회 개최

여야 정치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법회가 창원에서 열렸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6월 27일 창원 불지사에서 '6.1지방선거 당선인 초청 경남 발전과 상생, 통합기원법회' 를 봉행했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봉행사에서 "목표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한다면 초심이요, 그 목표를 향해 게으름 없이 이어감이 발심이며 가는 도중에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사도(邪道)로 들어가지 않게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아 경계함이 자경심이다. 삼심(心)을 깊이 새겨 고정됨이 없이 정진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자 법회 인연과 사부대중과 함께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상생과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활동에 있어 경남도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지사 정인 스님을 비롯해,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원정 스님, 정법사 광우 스님, 정암사 상운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송림사 지암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문수암 이암 스님, 대광사 무경 스님, 안국사 성오 스님 등 지역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등 선거당선인들과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각 사찰 신도회 회장단 및 사부대중 1000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 여름수련회 연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바쁜 일상을 떠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름수련회를 다시 연다.

'다시 일상으로, 산사에서 행복한 나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일반부 50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사찰 기본예절 및 예불 습의, 108배 및 참선, 팔만대장경 사랑 3보 1배 등 3박 4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초 · 중등부 50명을 대상으로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찰예절과 예불배우기, 명상체험, 팔만대장경 사랑 걷기 명상 등 2박 3일 과정이 진행된다.

수련회 참가 신청은 해인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다. 각 부별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인사는 "이곳에서 바쁜 일상을 떠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참 나를 발견하는 행복한 여름 시간이 되길 주문했다.(055)934-3012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호국불교조계종 합동위령대재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4일 총본산 다부동 법전사(주지 혜륜)에서 제46회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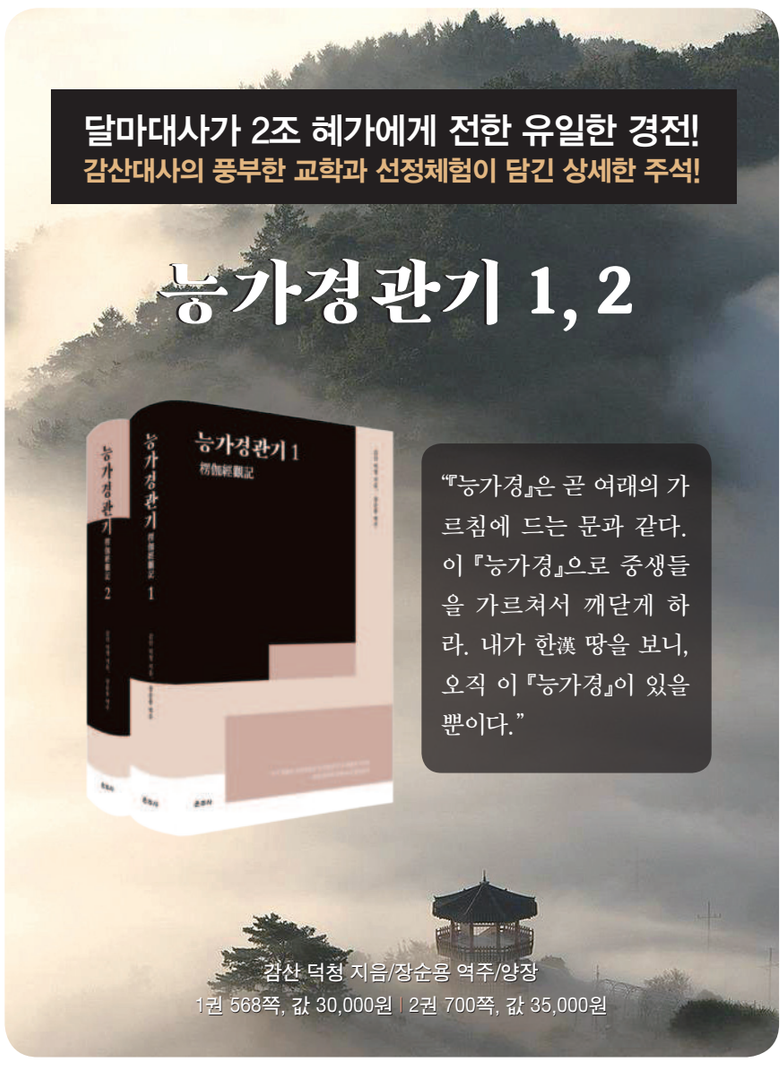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의전단의 집전. 권공, 법요의식과 살풀이, 승무, 헌화 및 분향 등으로 진행됐다.

합동위령재에는 법전사 주지 혜륜 스님과 용화사 성문 스님, 홍련사 홍안 스님, 대현사 대연 스님, 동국사 진각 스님, 정광진 예술인연합회장, 김영애 한국명시낭송가협회 법인이사 및 관련 기관 단체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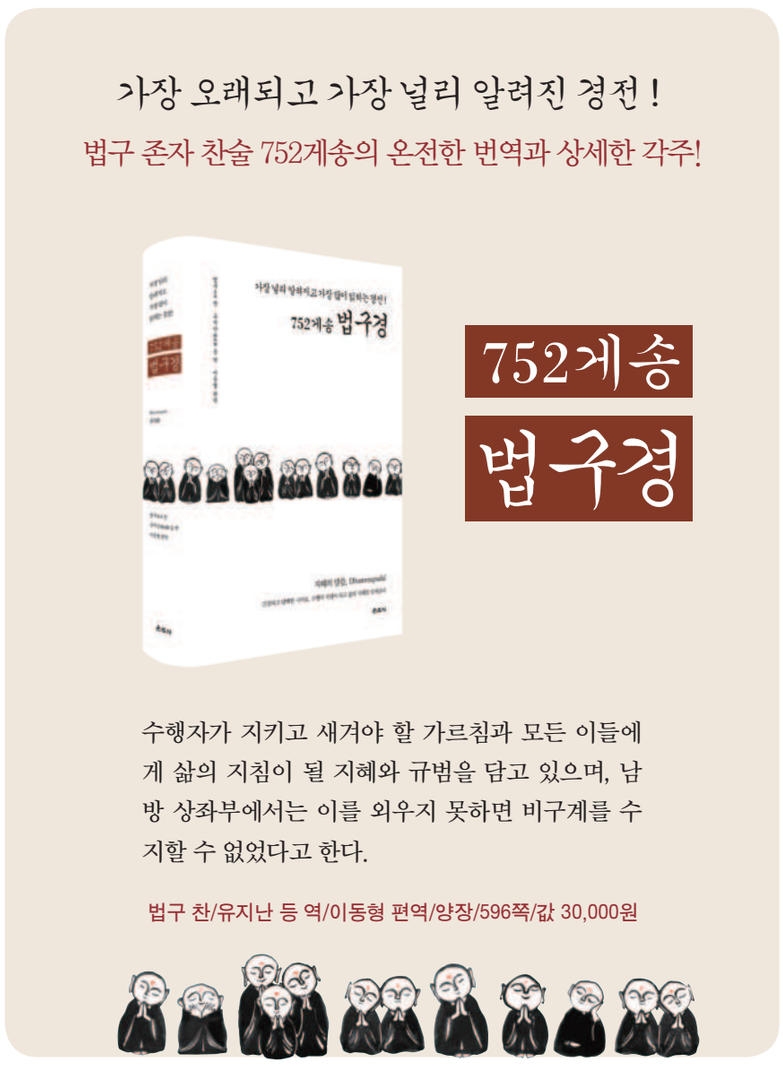


법전사 주지 혜륜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영령 위로와 함께 남북통일을 기원하자"며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을 제도하고, 한국전쟁 참상을 거울삼아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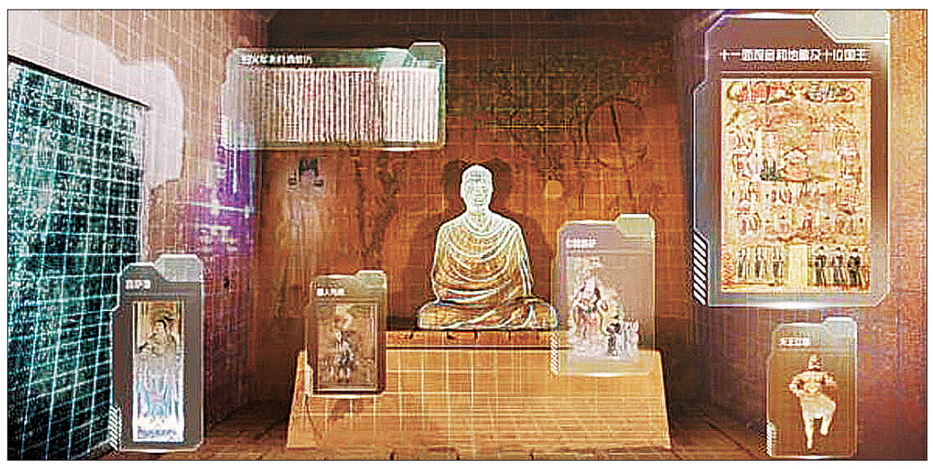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유네스코 둔황석굴 가상현실로 만난다

관람객 출입 인한 훼손 막고자
'장경동' 3D게임 형식으로 재현
공식 캐릭터 제작…볼거리 제공
디지털 문화재 분야 인재육성도

박영빈 객원기자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원된 막고굴 제17굴 '장경동'. 사진출처=신화통신

세계문화유산으로 불교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둔황 막고굴이 가상현실로 재현됐다. 6월 20일 중국 '신화통신'은 둔황연구원과 인터넷 미디어 기업 텐센트가 공동으로 합작하여 제작한 '디지털 장경동'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중국 간쑤성 둔황시에 소재한 막고굴은 세계 최대규모의 불교 석굴사원 유적으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1천 년 동안 조영됐다. 735개의 인조 동굴로 만들어 졌으며 이중 492개는 불당, 243개는 스님들의 요사채나 묘굴로 사용됐다. 1961년 중국의 국보에 해당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됐고, 198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막고굴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20세기 전반에는 서구열강의 약탈이나 도굴 등으로 많은 훼손을 입었다.

막고굴에서 가장 주목받는 굴은 제 17굴인 장경동(藏經洞)으로 6만여 점의 불경과 고문서들이 발견됐다.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르는 이 문헌들은 근현대의 '둔황학'의 시초가 된 문헌들로 한문을 비롯해 티베트어나 소그드어 등 당시 실크로드에서 사용된 모든 언어들로 작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신라의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도 포함되어 있다.

막고굴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둔황연구원은 관람객들의 출입으로 진행되는 훼손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고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장경동'을 제작하기로 결정, 지난 15일에 결과물을 공개했다. 연구원 측은 "700여 개가 넘는 동굴들 중 장경동이 막고굴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에 장경동을 가장 먼저 가상현실로 제작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3D게임 제작으로 유명한 텐센트가 제작한 이 디지털 장경동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제작됐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하게 가상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실제 사물과 환경, 상황을 그대로 복제하여 가상현실로 옮기는 것으로 실제 장경동과 1:1로 대응하게 된다.

둔황연구원은 디지털 장경동을 제작하면서 해외로 유출됐거나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장경동의 문헌도 동굴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재현하면서 명실상부한 장경동을 만들어 냈다. 가장 먼저 디지털로 만들어진 문헌은 현재 둔황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귀의군아부주파력(歸義軍衙府酒破歷)〉으로 당나라 때의 공문서다.

또한 둔황연구원과 텐센트는 막고굴의 디지털 장경동의 공식 캐릭터 '가요(伽瑤)'도 함께 공개했다. 막고굴 벽화 가운데 등장하는 가릉빈가를 모티브로 한 가요는 디지털 장경동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둔황벽화에 묘사된 춤을 보여주는 등의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연구원과 텐센트 측은 장경동을 시작으로 남은 막고굴들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가상현실로 옮길 계획이다. 또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문화재의 디지털화 분야의 인재 육성도 전개한다.

부탄 불교계, 비구니계 부활…왕실 적극 지원

6월 21일, 144명 비구니 탄생
티베트 불교 불평등 해소 기대


제 켄포를 전계대화상으로 비구니 수계산림이 부탄에서 열렸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티베트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부탄에서 144명의 비구니 스님이 탄생했다. 6월 25일, 해외 불교 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여러 해외매체들은 부탄을 비롯해 인도와 영국에서 온 다국적 사미니 스님들이 구족계를 완전히 갖춘 비구니로 탄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수계를 통해 단절됐던 티베트 불교계의 비구니계맥이 부활했다.

지난 6월 21일, 부탄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제 켄포가 주석하는 승원인 슝 다창 사원은 공식 SNS를 통해 비구니 수계산림에 대해 발표했다. 슝 다창 측은 "부탄 수도인 파로 교외의 람탕카 사원에서 수계산림이 열렸으며, 전계대화상으로 부탄불교 최고지도자인 제 켄포인 툴쿠 직메 최다 스님이 직접 구족계를 수계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계산림을 통해 구족계를 온전히 지닌 144명의 비구니가 배출됐다. 이들 대부분은 부탄 출신이나 일부는 인도에서 참가했으며 오직 구족계를 받기 위해 영국에서 참여한 사미니 스님도 있었다.

이번 수계산림은 부탄 왕실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 부탄 국왕의 어머니인 체링양된 대비가 2009년 설립한 '부탄 비구니재단'을 통한 여성 출가자들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 등의 결과물이다. 이번 수계를 받은 스님들은 비구스님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통해 아사리나 승원장과 같은 법계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

티베트 불교권의 경우 역사적으로 비구니계가 전해진 정황은 있으나 단절됐다. 현대에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여성출가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교계 안팎에서 지적되면서 비구니 계맥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 카르마파, 걜왕 둑파 린포체 등 여러 종단의 지도자들의 지지 하에 계맥의 복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된 한 스님은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말이 나오질 않는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며 감동을 표현했다. 또 다른 스님은 "수계 전에는 성불을 위해 내생에 비구로 태어나길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몸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단 확신을 가진다"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페인, '제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 연다

10월 19일~23일, 바르셀로나
어린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도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 홍보 이미지.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해 10월 제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FCBC) 개막이 예정되어 화제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6월 27일 스페인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제 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 개막 소식을 전했다.

불교 영화제는 카탈루냐와 발레아레스 제도 내 30여 개의 불교 단체로 이루어진 카탈루냐불교단체조직(CCEB) 주관이며 국제불교영화제(IBFF)의 제작사 불교영화재단(BBF)과의 협력 및 달마가이아재단(DGF)의 지원을 받는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베르디 영화관에서 열릴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에서는 불교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교육, 사회, 양성평등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세션에는 영화감독들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토론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CCEB의 공동 설립자이자 부회장인 몬테 카스텔라 올리브는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는 격년 개최를 목표로 출범했다"면서 "불자나 불교를 위해 만든 행사가 아닌 영화처럼 우리 시대에 맞는 매력적인 매체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불교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영화제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가치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탄소발자국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한 재활용 가능한 재료만을 사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참여를 존중하는 기준에 따라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의 불교 영화 선정 기준은 전달이 쉬운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화의 중심에 불교적인 요소와 등장인물 또는 사건이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핵심 창작자(감독 또는 각본가) 또는 불교계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의 불교 매체 '에스파뇰'의 편집자 다니엘 밀레는 "영화는 설법 못지않게 심오하지만 불교의 기초 교리를 재미있는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에게 불교를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매체"라고 평론했다.

제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에서는 불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베르디 영화관 내 다양한 장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명상 세션과 워크숍, 영화 포럼, 콘퍼런스, 토크 및 야외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 승려 체포

평화 시위 중 21명 체포 논란 일어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 정부" 개탄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동참한 스님을 포함한 21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가톨릭 아시아 뉴스 연합'은 6월 21일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동참한 스님을 포함한 21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각계 종교 지도자와 수천 명의 스리랑카 주립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라자팍사 대통령의 73번째 생일인 6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경제위기 대처 실패 및 국가 부도 선언을 이유로 대통령과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한 스님 등 21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시위대가 재정부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의 협의회 참여를 방해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체포된 시위대는 법정에서 각각 50만 루피(한화 약 800만 원)의 보증 보석을 받고 풀려났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지하는 인권운동가 아밀라 지완타 신부는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평화 시위를 막지 말라. 오늘은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소통이 불가한 지도자가 탄생한 가장 비참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모든 스리랑카 국민은 집 밖으로 나와 부패한 지도자를 쫓기 위해 시위를 벌여야한다"며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 시위대는 "현 정권에서 적절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IMF 대표단의 도착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은 지난 4월 9일 수도 콜롬보에서 시작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외국 채권자들에게 빚진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 이상의 채무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 전 총리, 전 재무장관, 전 중앙은행 총재, 전 재무장관, 현 총리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본권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생명 소중함 알리는 소식지 우리 손에 달렸죠”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⑥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달 마지막 주 월 · 화 · 수요일 소식지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사진=박재완 기자

매달 30여 명 자발적 참여…발송 봉사 평균 20년
“‘베테랑’ 봉사자들이 생명나눔 운동 이끄는 힘”

20명은 족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회의 탁자 위로 종이봉투와 책자가 가득 쌓였다. 10여 명이 팀을 이뤄 둘러앉아 한쪽에서 책자를 종이봉투에 넣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소 라벨을 붙인다. 밀봉된 봉투가 가득 쌓이면 또 다른 한쪽에서 정확히 숫자를 세어 노끈으로 묶고 바구니에 담는다. 중간중간 “까르르~” 웃음소리가 이어지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인다. 익숙한 손짓으로 자신이 할 일을 척척해내는 이들은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소식지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자들이다.

매달 마지막 주 월 · 화 · 수요일 서울 종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 회의실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해진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 ‘행복한 빈손’ 배송 작업을 위해 봉사자들이 모이기 때문. 소식지 1만 4000부를 전국 후원회원과 기관들에 발송하기 위해 3일간 매일 10여 명씩 총 30여 명이 봉사에 나선다. 모두 발송봉사 평균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1998년 제작을 시작한 ‘행복한 빈손’은 2022년 7월 현재 293호를 발행, 25년의 역사를 가졌다. 봉사자 대부분이 초창기 멤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턴지 기억도 안 나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에서 만난 손강자 보살(78)은 배송 봉사자들 중 ‘큰형님’이다. 손강자 보살은 자식과 동생들을 탈 없이 키워낸 후, 요양원과 군종교구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다 요양원 책꽂이에서 우연히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책자를 발견하고 그 길로 희망등록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봉사자가 됐고 소식지 발송 작업부터 거리 캠페인까지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손강자 보살이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자 감동한 딸과 사위도 장기기증 희망동록 동참자가 됐다. 최근 들어 건강 문제로 봉사활동을 줄이면서도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는 손을 놓지 않은 이유다.

여든을 앞둔 고령에도 허리를 꼿꼿이 유지한 채 소식지를 분류하던 손강자 보살은 “엄마의 활동을 보고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걸 보고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지속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배송작업 마지막 날인 6월 29일 만난 봉사자 막내 김순임 보살(64)은 “매달 초 달력을 넘길 때마다 봉사 날짜를 가장 먼저 표시하는 습관이 벌써 20년이 다돼간다”고 말하며 웃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 입적 후(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시작했다는 김순임 보살은 “다양한 계층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직접 배송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봉사를 위해 생업인 아르바이트 날짜를 조절할 정도로 배송작업 봉사에 정성을 다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봉사자들의 진심과 꾸준함을 알기에 소식지 배송 날이면 사무실에 꼭 방문해 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생명나눔운동을 확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이라며 “‘베테랑’ 봉사자들이야말로 생명나눔운동본부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이자 생명나눔 운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말했다.

매달 전해오는 생명나눔 소식 ‘행복한 빈손’

1998년부터 제작, 25년 이어
1만4천부 발송…‘회계보고 장’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1998년 제작 · 발송을 시작한 ‘행복한 빈손’은 2022년 7월 현재 293호까지 발행됐다.

총 30페이지로 구성된 ‘행복한 빈손’은 이사장 일면 스님의 법문이 담긴 ‘생명나눔 편지’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장기기증 서약 방법을 담은 ‘함께해요 생명나눔’, 치료비 지원이 간절한 이들을 소개하는 ‘이달의 환자’, 도움을 받았던 환자의 소식을 전하는 ‘환자 감사편지’, 희망등록자 및 후원자 명단이 기록된 ‘생명나눔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생명나눔 실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매달 후원자들이 보내준 회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상세히 공개하고 보고함으로써 활동은 물론, 본부와 후원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 장기기증 기관인 만큼 불자들의 이야기도 담겨 포교지로도 손색이 없다.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가득한 소식지는 현재 전국 후원회원과 각종 기관에 매달 1만 4000부 발송되고 있다.

이형렬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소식지를 통해 장기기증과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는 후원자들이 자신의 후원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생명나눔 확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갖는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꼼꼼한 ‘회계 보고의 장’이자 ‘정보 창구’로서 소식지 제작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성한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

한 눈에 살펴보는 생명나눔 하반기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국 대학가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하반기부터 일상을 재개하고 부처님 자비사상 전파와 법인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매서웠던 코로나19 한파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생명나눔 실천과 장기기증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먼저 생명나눔실천본부 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대회’**가 9월 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개최된다. 희망 걷기대회는 매해 초여름,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일반시민, 중 · 고등학생 등 2000여명이 동참해 생명존중을 다짐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3년간 개최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그동안 대회를 즐겨왔던 동참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순환로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회향 후에는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남산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신록이 주는 푸르른 기운을 누리고 사물들과 속삭이듯 한마음 한뜻으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을엔 희망걷기 대회 · 산사음악회로 더 풍성하고
겨울엔 자선음악회 · 정나누기로 따뜻한 세상 구현

불암사 경내에 국화가 만발해지면 열리는 **‘생명나눔의 날 산사음악회’**는 9월 24일, 문화공연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름다운 무대로 진행된다. 트로트, 발라드, 댄스 가수들이 총출동해 신명나는 음악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1월 5일에는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 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을 올린데 이어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는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생명나눔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배수지 배우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격적인 음악회에서는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의 공연과 국악가수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월 6일, 서울 달동네와 영구임대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는 **‘제9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도 빠질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등 달동네에 솜이불 수백 채를 전달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눈다. 일면 스님을 비롯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등이 직접 나서 김치, 라면 등 기초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듯한 겨울 되기를 기원할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매년 50여 명 정도의 생명을 살리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과 대학, 군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희망등록 활성화, 자살예방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불교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마라난타 고향, 파키스탄 불교를 만나다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

주한파키스탄대사관 6월 28일 시사회
간다라지역 등 대표 유적지 유물 소개
파키스탄 불교 전래·전파 과정 그려
라호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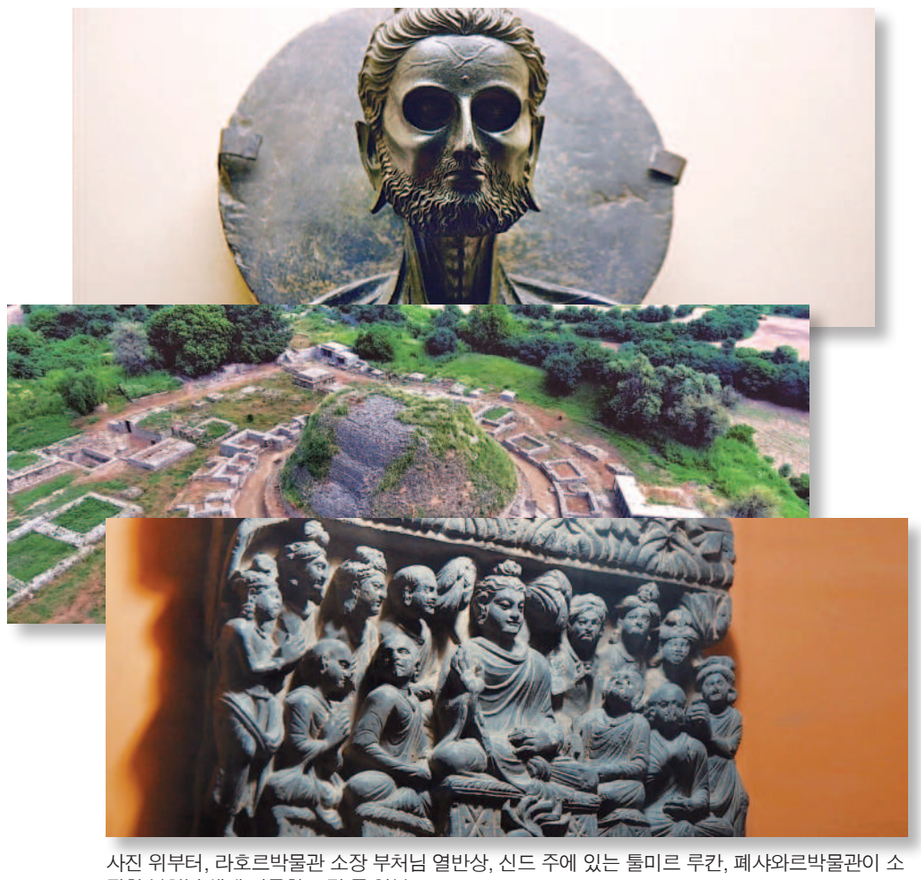


사진 위부터, 라호르박물관 소장 부처님 열반상, 신드 주에 있는 툴미르 루칸, 폐샤와르박물관이 소장한 부처님 생애 기록한 조각 중 일부.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6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시사회를 통해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Buddhist Heritage of Pakistan)'을 공개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2021년 8월부터 파키스탄 불교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파키스탄 현지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사와 공동으로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러닝 타임 41분)'을 제작했다. 이번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은 파키스탄과 한국의 불교문화교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한국 불자들에게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을 알림으로써 양국의 교류 증진을 위해 제작됐다.

파키스탄은 간다라미술, 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로 많은 불교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있다. 메르가르문명, 인더스문명, 간다라문명, 실크로드 등 변화와 번영을 거듭해온 파키스탄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성'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불교가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 소개한다.

다큐멘터리는 간다라 지역에서 시작되는 파키스탄의 불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에서 불교가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부처님의 일대기와 함께 소개한다.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는 최고의 부흥기를 맞게 된다.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은 오랜 역사관계에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4세기 마라난타 승려의 여행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마라난타 승려는 오늘날의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한국 법성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불교를 소개했습니다."

간다라 출신의 마라난타는 법성포를 거쳐 백제에 들어와 불갑사를 세우고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불교와 파키스탄불교의 오랜 인연을 소개하면서 간다라 문명 속에서 불교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특히 간다라 문명이 나은 간다라미술을 깊이 있게 소개한다. 간다라 지역의 불교 유산과 독특한 예술은 여전히 아시아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

간다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혜초 스님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한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는 간다라의 주요 지역인 카슈미르, 길기트, 스와트, 치트랄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원본은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아쇼카왕이 불교 포교 메시지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카로스티어로 새긴 거대한 암석, 밍고라 지역의 붓카리 불탑, 간다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도상 중 하나인 좌불상, 스와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십 기의 불탑 등 다큐멘터리는 파키스탄 곳곳에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탁실라의 대승탑으로도 알려진 다르마라지카 불탑은 부처님의 작은 뼛조각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곳은 탁실라 최초의 불교 수도원이자 기도하는 장소로 아쇼카왕이 설립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치아는 현재 탁실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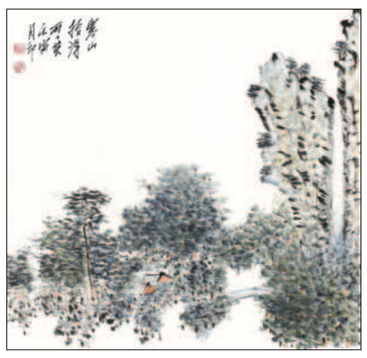
다큐멘터리의 백미는 간다라 문명과 불교 문화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편잡주의 라호르박물관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고행상을 만나볼 수 있다. 사라와스티와 시크리 불탑과 더불어 부처님 고행상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전시품 중의 하나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깊게 패인 두 눈, 가죽만 남은 얼굴, 그 위로 드러난 핏줄과 힘줄, 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가부좌 자세, 선정을 보여주는 듯한 두 손. 간다라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중의 하나인 부처님 고행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루 쌀 한 톨만으로 극단의 고행을 했던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세밀함의 그리스 조각 기법으로 탄생한 불상의 모습은 절로 감탄과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3만 점의 간다라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페샤와르박물관 본관에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74개의 스토리보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곳은 페샤와르박물관이 유일하다고 한다. 좌불상, 입상 등 거대한 크기의 다양한 모습을 한 부처님 조각상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Buddhist Heritage of Pakistan)'은 주한파키스탄 대사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uiShB7lj0e8)에서 볼 수 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선서화전

'월인-묵언(月印-墨言)' 展
7월 3일~8월 6일 범어사성보博



경선 스님 作, 한산습득가가소.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범어사성보박물관에서 선서화전 '월인-묵언(月印-墨言)'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1년 가을에 열었던 '월인산방' 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10여년의 세월 속에서 더욱 깊어진 경선 스님의 선서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경선 스님의 선서화는 묵향과 법향이 어우러져 월인삼매에 이른다. 수행자의 본분인 예불과 수행을 철저히 지키는 과정에서 마주한 깨달음을 전통문인화적 필치와 선(禪)적 시구(時句)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벽암록의 〈조주석교〉, 〈강산고절처〉, 〈불식〉, 〈불회〉, 〈산심수심선심〉에서는 문기(文氣) 넘치는 산수정취에 득향(得香)의 묵언을 부여했다. 그리고 분주했던 어부가 한시름 숨을 돌리고 유유자적 물결과 바람을 가로지르는 〈망중한동중정〉, 〈어부한사〉, 〈겁외어부〉, 〈춘유백화추유월 하유량풍동유설〉 작품들은 범어사 정진도량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며 쉼 없이 예불 울력 공양을 철저히 지켜왔던 스님의 원력시간 가운데 관조적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더욱이 안양암에서 바라본 〈안양암 일출〉, 구름속에서 나투는 〈웅비〉, 화면중심에서 빛을 발광하는 여의주를 품고자 하는 〈봉황 여의주〉, 녹음푸른 산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그림 속에 '한산습득가가소'란 화제시를 적은 〈한산습득가가소〉 작품들은 아마도 금정총림 범어사의 법력과 비상, 이를 위한 주지 경선 스님의 깊은 염원과 지극한 마음이 투영되는 듯하다.

경선 스님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장을 역임했고, 특히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범어사 선문화교육관·템플스테이관·성보박물관을 신축 및 개관하여 하나의 문화도량을 조성하는 원력을 이뤄냈다. 이번 전시는 작년 11월 신축 이전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초청하는 특별기획전이다. 문의 (051)508-6139.

박재완 기자

제7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 공모

작품 접수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이 제7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전통불화 △현대불화 △공예(조각) △민화 등 총4개 분야이며, 작품접수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문사(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로 접수하면 된다.

전통불화와 현대불화의 규격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 이하여야 하며,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가능하다. 공예(조각)는 높이 200㎝ 미만, 가로×세로 합이 400㎝ 이하, 무게 500㎏ 미만이어야 한다. 민화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이 400㎝ 이하이며, 액자로 제작해 접수해야 한다.

공모요강과 출품원서는 6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장·상패를 수여하며, 대상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장상 1명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상장·상패, △우수상 4명에게는 상금 각 200만 원과 상장·상패, △장려상 4명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과 상장·상패, △특선(약간 명)에게는 상장 및 상품, △입선(약간 명)에게는 상장, △특별상에는 상장 및 기념패가 주어진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10월 26~3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전시한다. 문의 (02)547-4746(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박재완 기자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100년 간 불교철학 · 역사 연구 한눈에”

한국불교사연구 · 한국불교학연구 엮은 고영섭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문으로서 불교학은 서구 근대로부터 ‘발명’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승불학은 불 · 유 · 도(佛 · 儒 · 道)와 선교(禪敎)를 논했지만, 서구로부터 온 불교학은 고증과 분석적 고찰로 불교를 다뤘죠. 한국에서 한국불교사와 불교학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입니다. 당시를 대표하는 것이 1918년에 간행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입니다. 이후 100년 동안 한국불교학도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간의 성과를 담아낸 논문들을 묶어보려 했습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학연구〉(세존학술총서 6 · 7)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민족사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학연구〉는 지난 100년간 연구된 한국불교사 논문 21편, 한국불교철학 논문 21편을 선정하고 그 이유 등을 정리해 엮었다.

“민족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0년간 연구된 한국불교 논문들 중 ‘한국불교사연구’ 와 ‘한국불교학연구’ 로 방향성을 정하고 한국불교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논문들을 조사 · 분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논문의 의미’ 와 ‘학술적 가치’ 를 기준으로 논문들을 선정해 엮었습니다. 학연, 지연들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한국불교사연구〉와 〈한국불교학연구〉는 각 분야를 통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별 · 인물별로 논문이 게재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불교사연구〉는 김두진의 ‘고구려 초전불교의 공인과 그 의미’, 안계현의 ‘백제불교에 관한 제문제’, 신종원의 ‘안홍과 신라불국토설’ 을 통해 고대 4국의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최병헌의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적 위치’, 김상영의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 양상과 조계종의 위상’, 이종수의 ‘조선 후기 불교 사기(私記) 집성의 현황과 과제’, 김광식의 ‘일제하 한국불교계의 독립운동 전개와 성격’ 등에서는 고려-조선-근대의 불교 역사를 살필 수 있게 했다.

〈한국불교학연구〉는 고대의 불교 전래 이래 중세와 근세 및 근대의 불교 철학의 지형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을 선정해 한국불교철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엮었다.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관점에서 김성철의 ‘신삼론 약교이제설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조윤경의 ‘〈대승현론〉 길장 찬술설에 대한 재고찰’, 안성두의 ‘원측의 〈해심밀경소〉에 나타난 알라야식과 그 특색’, 이종철의 ‘원측과 티베트불교’, 권오민의 ‘원효교학과 아비달마’, 고영섭의 ‘분황 원효의 일심사상’, 해주 스님의 ‘일승법계도에 나타난 의상의 법계관’, 진수 스님의 ‘신라 의상이 일본 화엄학에 미친 영향’, 이수미의 ‘〈대승기신론〉의 알라야식에 대한 대현의 이해’ 등을 통해 고대 4국의 불교철학을 엿볼 수 있다.

고 교수는 파편화된 논문들을 주제나 테마를 정해 한 곳에 묶어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관련 논문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를 하나의 관점이나 컨셉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대중들은 보지 않아요. 앞으로도 테마를 정해서 관련 논문선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 같은 논문선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고 교수의 목표는 한국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통사’ 를 발간하는 것이다. “‘통사’ 는 다양하면 할수록 좋다”는 고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통사’ 집필에 열심이다.

“올해 11월 마감을 목표로 통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발간하면 내년 초 쯤이 될 것 같습니다. 교단, 사상, 미술 등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고영섭 교수가 자신이 엮어낸 〈한국불교사연구〉〈한국불교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편린된 연구논문 한데 모아
통사적으로 읽도록 엮어내
각 권에 21편 논문 수록해
“불교통사 집필, 내년 발간”



희소 고려末 건칠불상 보물된다

건칠불상 · 아미타삼존상
문화재청, 30일 지정예고
건칠불, 20여 점만 전승
역사성 · 보존 가치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된 건칠보살좌상(사진 왼쪽)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사진 오른쪽)

고려 말기~조선 초에 조성된 건칠불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건칠보살좌상’ 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선시대 전적인 〈묘법연화경〉을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건칠보살좌상’ 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說法印)을 결한 좌상이다. 제작기법은 건칠(乾漆)로, 건칠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옻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기법이다. 현재 건칠불상은 20여 점 밖에 존재하지 않아 불교조각사에서 희소한 가치를 지닌다.

건칠보살좌상은 124.5cm의 큰 규모에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정된 비례감과 중후한 신체 표현을 비롯해 석영재질의 눈동자를 별도로 만들어 넣은 조성기법 등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후대의 보수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현존하는 건칠보살상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중량감 넘치는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며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과 공예기술이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됐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췄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지닌 점에서 한국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원문을 통해 이 삼존상은 시주자인 장현(張鉉)과 그의 처 선씨(宣氏), 김진, 이겸 등이 발원자로서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존불을 시주한 김진과 이겸은 고위관직을 지낸 인물들로서 원나라 태황태후를 하례하거나 중요 불사에 참여한 행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문화재청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 아미타여래와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제작당시의 모습 그대로 모두 남아 전하는 사례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며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고려 후기 불상 제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안심사(安心寺)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으로,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칠보살좌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정화주역 경산 대종사 조명 나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7월 12일 학술대회

청정율사이자 정화불사의 주역 학월 경산(鶴月京山, 1917~1979, 사진)의 업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법당간, 경산 대종사’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K-Buddhism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은 유구한 역사성과 다양성을 가진 한국불교의 문화콘텐츠를 첨단 기술로 가공한 고승 아카이브를 구축해 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조계종의 정법당간으로서 경산 대종사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발표와 논평은 이판과 사판에 있어서 장애가 없었던 학월 경산의 삶과 가르침을 연구할 수 있도록 불교교학과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학 분야 학자들이 참여한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는 ‘학월 경산의 수행과 지계’ 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경산 대종사의 정화불사와 종단화합’ 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월 경산의 총무원장 중심제’ 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경산 대종사의 포교행’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군승장교 원경 스님이 참여한다.

경산 대종사는 통합종단 이전인 1961년 2월에 총무원장으로 1차례 선출됐고, 통합종단 이후 1966년, 1973년, 1979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1975년 제9대 총무원장 재직 시에는 불교계의 숙원사업이던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이끈 장본인이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2



▶ 73회 예고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아버지 아쇼까왕을 만나러 빠딸리뿌뜨라성으로 온다. 아쇼까왕은 두 남매를 만난 뒤, 세 번째 부인 데비가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허탈해 한다. 아쇼까왕은 두 남매를 다르마 별궁으로 보낸다.

꾸날라, 두 눈을 뽑히다

탁실라에 도착한 특사 일행은 우두머리 대신인 라주까에게 환대를 받았다. 라주까는 부왕의 지시를 받기도 하지만 아쇼까왕의 지시를 직접 받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라주까는 인두강 강변 나루터까지 탁실라 신하들을 이끌고 나와 특사 일행을 맞이했다. 특사 단장은 탁실라에 온 용건부터 말했다.

"대왕님께서 부왕님께 전하라는 하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간 부왕비님과 아드님을 그리워하시는 데 큰 위로가 되겠소."

꾸날라 부왕비가 향수병에 걸려 어린 두 아들 삼빠딘과 다샤라타를 데리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꾸날라 부왕은 눈에 띄게 외로워했던 것이다.

특사 일행은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은 뒤 라주까를 호위하던 군사 지휘관을 따라갔다. 탁실라 성문에 들자마자 악단의 환영연주가 울려 퍼졌다. 특사 일행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 꾸날라 부왕을 알현하고 하사품을 올렸다. 꾸날라 부왕은 아내가 빠딸리뿌뜨라로 가버린 뒤 웃음을 잃고 있다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왕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니 감격스럽소!"

"궁중악단 악장이 잠부띠바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후라고 했습니다."

친위대 조장은 띠쉬아락시따 왕비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꾸날라 부왕이 호감을 품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었다. 꾸날라 부왕은 하사품으로 온 옛 까시국 제품인 비단 도티와 바지를 만져보고는 흐뭇해했다.

"난 이곳 탁실라의 거친 옷만 입을 수밖에 없었다오. 까시 비단은 장미꽃잎처럼 부드럽고 아름답다오."

"단장은 언제 떠나시오?"

"저희들은 특별한 용무가 없으므로 피로가 풀리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

"며칠간이라도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오. 내가 특사 일행을 위해 연회를 한 번 열어주겠소. 만찬 때는 내가 공후를 연주해 그대들을 즐겁게 해주겠소."

친위대 조장은 꾸날라 부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문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밀봉한 봉투에 대한 의구심이 솟구쳤다. 띠쉬아락시따 왕비가 왕명을 왜 자신에게, 그것도 탁실라를 떠나는 날 꾸날라 부왕에게 직접 전하라고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친위대 조장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밀봉한 봉투가 밤새 친위대 조장의 머리를 짓눌렀다. 아무런 의심 없이 띠쉬아락시따 왕비에게 받았지만 탁실라에 온 뒤에야 밀봉한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던 것이다.

'이럴 때는 어찌할 것인가?'

날이 새자, 특사 단원들은 탁실라성 밖의 유원지로 관광을 나갔다. 그러나 친위대 조장은 군사들과 함께 성 안에 남았다. 친위대 조장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라주까를 찾아 왕궁으로 들어갔다. 마침 라주까가 친위대 조장을 멀리서 보고 맞아주었다.

"특사 단장을 따라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인가?"

"이제 탁실라도 안전하다고 해서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었습니다."

"성 밖 몇 요자나까지는 안전하다네."

"라주까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인가?"

"대관님은 대왕님의 명을 직접 받는 라주까이시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보시게."

"빠딸리뿌뜨라에서 떠날 때 띠쉬아락시따 왕비님이 저에게 대왕님의 명이라며 밀봉한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는 날 부왕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대왕님의 공적인 명이 아닐세."

라주까의 단호한 말에 친위대 조장은 고개를 뒤로 젖힐 만큼 놀랐다. 그러나 라주까는 미소를 희미하게 지으며 말했다.

"대왕님께서 공적인 명령서를 그렇게 전할 리 없네. 특사 단장이 있잖은가? 가족 간에 사사로운 당부라서 왕비님을 통하셨겠지."

라주까는 서둘러 결론을 내린 뒤 화제를 바꾸었다.

"친위대장은 잘 있는가?"

"대왕님께서 가장 신임하는 측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깔라따까 수상님이 키웠지. 마침내 대왕님의 눈에 들었고. 그러니 그대도 대왕님의 눈밖에 벗어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네."

친위대 조장은 라주까에게 밀봉한 봉투를 떠넘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라주까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서였다. 친위대 조장은 라주까의 접견실을 나가려고 일어났다. 간밤에 품었던 의문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나가려고 하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라주까가 말했다.

"밀봉한 봉투를 가져왔으니 펴볼 수 없겠는가?"

"대왕님의 명이 들어 있는 편지를 어떻게 펴볼 수 있겠습니까?"

"띠쉬아락시따 왕비님의 언행이 조금은 석연찮고, 나는 대왕님의 명을 직접 받는 라주까가 아닌가? 사적인 당부라면 대의를 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친위대 조장은 순간적으로 한 시름 놓았다. 라주까가 밀봉한 봉투를 개봉하라고 하니 도대체 아쇼까왕의 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친위대 조장은 라주까에게 밀봉한 봉투를 내밀었다. 라주까가 밀봉한 봉투를 개봉했다. 문서를 보는 순간 라주까는 물론 친위대 조장까지 크게 놀랐다. 아쇼까왕이 꾸날라 부왕에게 끔직한 벌을 내리는 명령서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문서였다. 특사 단장을 통해서는 하사품을 내리고, 반대로 친위대 조장 편에 이런 가혹한 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했다. 라주까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마우리아왕국 국새가 틀림없으니 대왕님의 명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주까는 다시 한 번 국새를 유심히 살펴본 뒤 냉정을 찾았다. 친위대 조장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라주까의 말을 듣고는 정신을 차렸다. 마우리아왕국의 국새는 단 한 사람 오직 아쇼까왕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도장이었다. 라주까는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친위대 조장에게 주면서 말했다.

"밀봉하게. 부왕님에게 전하라고 했으니 별 수 없는 일이네."

"예, 그러나 제 손으로 차마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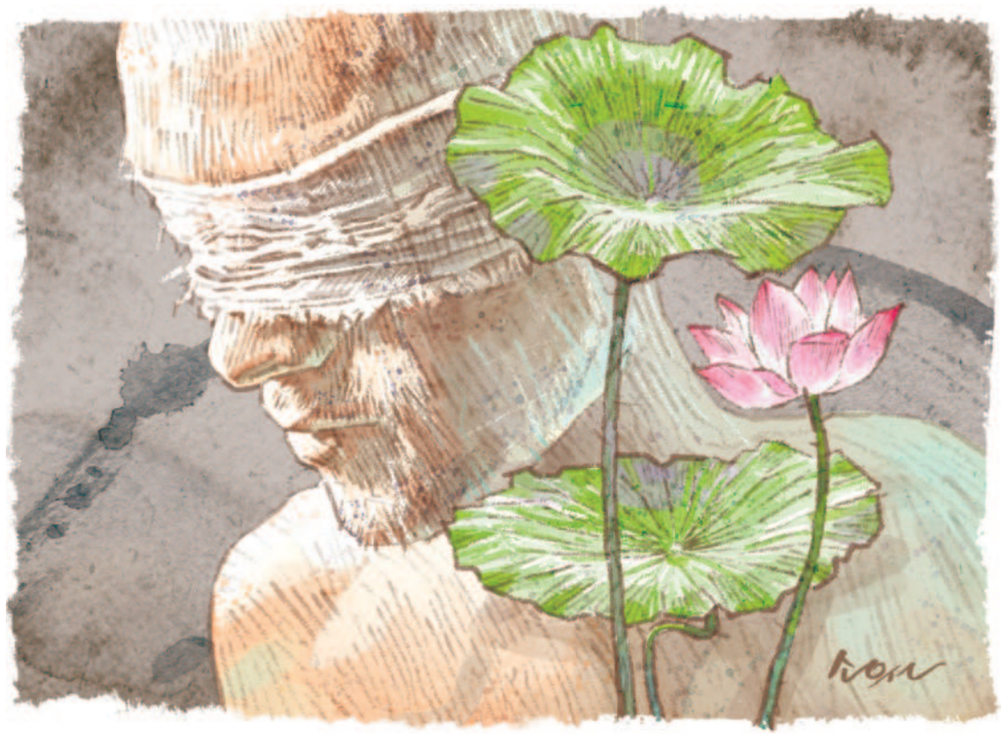
"그렇다고 내가 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친위대 조장은 밀봉한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들고 진퇴양란에 빠졌다. 아무 것도 모르는 꾸날라 부왕에게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직접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탁실라를 떠날 때 빠우라 자나빠다회의에 보내버릴까.'

부왕을 보좌하는 대신회의(大臣會議)를 '빠우라 자나빠다회의'라고 칭했다. 친위대 조장은 빠우라 자나빠다회의에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전하려고 결심했다. 아쇼까왕의 명은 결국 빠우라 자나빠다회의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특사 일행이 탁실라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꾸날라 부왕은 특사 일행에게 환송연을 크게 베풀어주었다. 라주까는 일찍 칭병을 하며 자리를 떠버렸고, 친위대 조장은 연회 내내 마음이 편치 못해 술만 마셨다. 무희들의 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악단의 연주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꾸날라 부왕이 공후를 연주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연회가 파장이 되었을 때였다. 친위대 조장은 빠우라 자나빠다회의에 참석하는 한 대신을 뒤쫓아 가서 밀봉한 봉투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대신님, 이것은 대왕님의 명령서입니다. 빠우라 자나빠다회의 때 보셔야 할 명령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내일 낮에 빠우라 자나빠다회의가 있습니다."

"라주까께서도 알고 계신 일입니다. 반드시 회의 때 보셔야 합니다."

"라주까께서 알고 계신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술에 취한 대신이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손을 허우적거리며 받았다. 비로소 친위대 조장은 안도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데다 꾸날라 부왕에게 직접 전하는 것만은 피했기 때문이었다.

특사 일행은 동이 트는 꼭두새벽에 탁실라성을 나섰다. 혹서기로 접어들었으므로 새벽에 이동하고 한낮에는 오침으로 피로를 풀어야 했다. 친위대 조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쇼까의 명령서를 받은 대신이 한밤중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서였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아직도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빠우라 자나빠다회의는 특사 일행이 옛 꾸루국 땅에 도착했을 무렵에야 열렸다. 친위대 조장을 만났던 대신이 아쇼까의 명령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대신들 대부분이 경악하면서도 달갑잖은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한 대신이 아쇼까왕의 명령서이니 꾸날라 부왕에게 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쇼까왕의 명령서였으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쇼까왕의 명령서는 회의가 끝난 직후 꾸날라 부왕에게 전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명령서를 받아든 꾸날라 부왕이 조금도 아쇼까왕을 원망하지 않고 복종했다. 당연한 일 같기도 했다. 꾸날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원망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대왕님 명을 따르겠소. 의원을 불러서 내 두 눈을 뽑게 하시오. 그런 뒤 나를 성 밖으로 추방하시오."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공개한 대신이 울면서 꾸날라 부왕에게 물었다.

"대왕님께서 주신 공후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떠나도록 해주시오."

라주까도 흰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나는 내 눈 때문에 고통스런 운명을 맞이했던 것 같소. 내 눈이 없다면 고통스런 운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소."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탁실라에 와서 노인이 지팡이를 붙잡듯 의지해 왔던 사문이 있소. 성 밖 옛 사원 터에 머물고 있는 사문이오."

잠시 후 사문이 기마군사의 말을 타고 오자, 꾸날라 부왕에게 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사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적이 일어났다. 왕궁의원이 날카로운 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꾸날라의 오른쪽 눈을 뽑아냈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꾸날라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꾸날라의 왼쪽 눈을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문이 소리 내어 말했다.

"부왕이시여, 그대는 한 눈이 뽑히는 동안 아름다운 눈의 무상함을 관하여 수다원의 도를 얻었고, 또 다른 눈을 뽑히는 동안 거듭 무상함을 관하여 사다함의 도를 얻었소. 부왕이시여, 사문은 육안을 버린 자만이 고귀한 법안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오."

이윽고 사문은 두 눈이 뽑힌 꾸날라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 밖의 옛 사원 터로 데리고 갔다. 기적을 본 왕궁의원도 뒤따라갔다. 꾸날라의 두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⑬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창립자 도신(道信) 선사



▶ 한줄 요약
사실상 중국 선종의 실제적인 초조는 바로 도신이라고 할 정도로 도신의 선종에 대한 작용은 절대적이다.

도신 선사, 중국 선종 실질적 '초조'

수대(隋代)는 40년을 못 채운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불교학에서는 천태 지의(天台智顗)와 길장(吉藏) 등의 고승들이 출현하였고, 또한 이 시기에 중국 선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 출현하였으니, 그가 바로 도신(道信, 580~651) 선사이다.

도신의 생애는 후대에 선종의 사조(四祖)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에서 기재되고 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전법보기(傳法寶紀)〉, 〈조당집(祖堂集)〉 등 선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전적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이다. 특히 도선은 도신이 입적한 영휘(永徽) 2년(651)에 도신의 전기를 추보(追補)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발생한 다른 전설이 가미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겠다.

〈속고승전〉 권20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도신은 사마(司馬)씨이며, 출신지는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7세에 계행(戒行)이 불순한 스승을 5년간 모시다가 13세에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2인의 승려를 따라 서주(舒州) 환공산에서 10년 동안 선업(禪業)을 닦았다고 한다. 그 후에 양제(煬帝)가 즉위하면서 또한 사도승의 출가를 허용하여 정식으로 계를 받고 길주(吉州)의 관립사찰인 길주사(吉州寺)에 배속되었다고 한다. 양제가 사도승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대업(大業) 3년(657) 정월(正月)의 일이며, 그에 따라 도신은 27세에 정식으로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속고승전〉에서는 당시 길주성이 70여 일 동안 도적에게 포위되었고 우물이 말랐지만, 도신이 길주사에 도착하자 물이 다시 나왔으며, 길주자사가 도신에게 도적이 언제 물러갈지를 묻자 도신은 성내의 사람들에게 '반야'를 염송하라고 하자 성의 네 귀퉁이에서 대력사(大力士)의 용맹한 모습이 현현하였고, 그에 도적들이 도망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도신은 형악(衡嶽)에 머물려고 향하다가 강주(江州, 九江)에서 도속(道俗)들의 청으로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 10년을 주석하였다. 이 대림사는 현재 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아쉽게도 유적조차도 볼 수 없지만, '연사(蓮社)'를 일으킨 혜원(慧遠)의 동림사(東林寺)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 대림사는 본래 지개(智鍇, 533~610)가 창립한 사찰이다. 지개의 전기는 〈속고승전〉 권17에 실려 있는데, 개황(開皇) 15년(595)에 천태 지의를 참알하여 천태학을 수습하여 지의대사가 중히 여겼다고 하며, 만년에 〈열반경〉, 〈법화경〉, 〈십송율(十誦律)〉을 강의하였으며, 수의 고조 문제가 제도(帝都)로 초청했지만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고, 대림사에 주석하면서 20년간 산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림사에 머물던 중에 황매현(黃梅縣) 도속들이 찾아와 황매현에 머물기를 청하자 도신은 황매의 쌍봉산(雙峰山)에 입산하였다. 이는 당(唐) 무덕(武德) 7년(624), 도신의 44세의 일이다. 따라서 〈속고승전〉에서는 1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27세에서 43세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약 16년에 이르도록 도신 선사가 대림사에 머물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시기에 도신이 천태학을 수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는 천태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또한 전체적인 도신의 선사상은 천태학으로부터 도출한 흔적이 여실하게 보인다.



도신 선사가 조성하고 법을 펼친 호북성 황매현 쌍봉산 사조사. 사진제공=정운 스님

27세 출가해 길주사에 배속돼
황매 쌍봉산서 동산법문 개창
천태학에서 '오문선요' 제창해

도신은 황매의 쌍봉산에서 동산법문(東山法門)을 개창하였으며, 이곳에서 30년간 주석하다가 72세로 영휘(永徽) 3년 윤 9월 4일에 입적하였다.

〈속고승전〉에서는 도신이 입적 당시에 쌍봉산 선문에는 500여 명이 주석하였다고 하면서 언급하는 제자는 다만 홍인(弘忍)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에서는 도신의 제자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인물이 존재하며, 나아가 황매의 자사 최의현(崔義玄) 등과 같은 고위관리들이 귀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속고승전〉에는 도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사층사(四層寺) 법현(法顯)과 형악사문(衡嶽沙門) 선복(善伏)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천태학의 대가들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도신으로부터 법을 수학한 것은 천태학을 사상적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법현은 30년간 천태학을 수학하다가 도신을 찾아 본심(本心)을 밝혔다고 한다.

도신의 선사상과 관련된 유일한 자료는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이다. 〈능가사자기〉의 돈신전은 거의 반에 이를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신의 선사상을 밝히기 위하여 찬술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타날 정도이다. 그에 따라 〈능가사자기〉의 도신전을 중심으로 그 선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능가사자기〉의 도신전은 "당(唐) 기주(蘄州) 쌍봉산(雙峰山) 도신선사는 찬선사(燦禪師)의 후계자이다. 그 도신선사는 다시 선문(禪門)을 일으켜 천하에 전파하였다. 도신선사에게는 〈보살계법(菩薩戒法)〉 1권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이라는 저술이 있다"라고 시작된다. 여기에서 도신이 삼조(三祖) 승찬(僧璨)의 제자라는 것은 후대에 성립한 조통부법설에 입각한 것이지만, 〈보살계법〉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의 저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능가사자기〉의 도신전에 보이는 사상에 대한 논술은 바로 〈입도안심요방편법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더욱이 도신은 제자들에게 "입도방편(入道方便)"으로 교화하였다는 기록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 저술을 통하여 교계(敎誡)하였다고 하겠다.

이에 이어서 도신전에서는 "나의 법요(法要)는 〈능가경〉의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에 의거한다. 또한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하여 도신 선사의 법요를 밝히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불심(佛心)'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불성론(佛性論)의 대전제를 선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사상적으로 달마-혜가계와 도신-홍인계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출현한 것으로, 전체적인 도신의 선사상에 〈능가경〉의 사상적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도신전에서 '심'을 논할 때 〈무량수경〉의 "모든 부처님들의 법신은 일체중생의 심상(心想)에 들어 있으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是心是佛), 이 마음이 바로 부처를 만든다(是心作佛)"고 한다. 그러므로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인 것을, 마음을 벗어나서는 다른 부처는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는데, 이는 오히려 천태학으로부터 연원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자 대사에게 〈불설관무량수불경소(佛說觀無量壽佛經疏)〉라는 저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는 바로 반야공관을 바탕으로 선법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과 '반야'라고 하는 두 축을 법요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북조와 수대를 거치며 이미 거의 모든 종파에서 정형화된 것이라 하겠다.

도신은 자신의 법요로 설정한 '일행삼매'에 득입(得入)을 위하여 염불(念佛)과 좌선(坐禪)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최종적인 '방편'을 다음과 같은 '오문선요(五門禪要)'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마음의 체를 아는 것이다.(知心體) 마음의 체는 그 성(性)이 청정하여 부처와 동일하다.

둘째, 마음의 용을 아는 것이다.(知心用) 마음이 작용하여 법보(法寶)를 낳고,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여 언제나 정적하며, 모든 혼란에서도 그대로이다.

셋째, 언제나 깨달아 머물지 않는 것이다.(常覺不停) 깨닫는 마음은 항상 눈앞에 있고, 깨닫는 대상은 모습이 없다.

넷째, 항상 몸이 공적함을 관하는 것이다.(常觀身空寂) 자신의 안팎이 하나로 관통하면, 몸은 법계(法界)의 속으로 들어가 일찍이 걸림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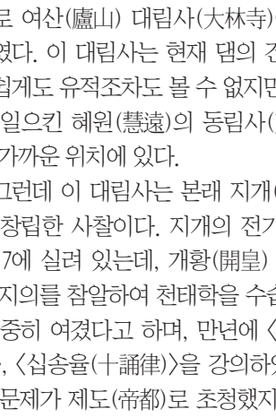
다섯째, 하나를 지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守一不移) 움직임과 고요함이 항상 한 곳에 머무르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불성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하고, 빠르게 정문(定門)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이 '오문선요'는 마음의 체용(體用)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상각부정(常覺不停)'과 상관신공적(常觀身空寂)의 반야공관(般若空觀)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일불이(守一不移)'에 이르는 선법이다. 이는 비록 상당히 간략하지만, 그 사상적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특히 '수일불이'에 따라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정에 들어감(泯然心自定)"이라고 하고 있다. 이 "민연심자정"은 바로 입도안심(入道安心)의 경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도신선이 목적하는 정수라고 할 수 있어 수일불이는 바로 도신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달마가 선수학(禪數學)의 전통을 계승한 정학(定學)으로부터 '이입사행(二入四行)'의 간결한 선사상을 도출했다고 한다면, 도신은 복잡한 천태학으로부터 '오문선요'를 제창하였다고 하겠다. 비록 달마-혜가계와 도신-홍인계는 결코 사법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 선사상 역시 같은 맥으로 볼 수 없지만, '불성'과 '반야'라는 틀로 간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중국적 사유의 특징인 〈주역(周易)〉에 보이는 "앎이 간결하면 실행이 용이함(知簡行易)"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의 선사상은 모두 이러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도신의 법을 이은 홍인에 이르러서는 '동산법문'이 더욱 흥성하게 되는데, "천하 도속의 십중팔구가 그 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보일 정도이다. 사실상 중국 선종의 실제적인 초조는 바로 도신이라고 할 정도로 도신의 선종에 대한 작용은 절대적이고, 실제로 도신의 선사상에서 '방편'의 측면을 걷어낸다면, 후대에 제창된 조사선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신의 중대한 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2022년 7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현대불교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⑬ 서방정토변상도

▶ 한줄 요약
〈서방정토변〉은 남북조시대에 등장했고, 당대에 접어들면서 유행하게 된다. 돈황 막고굴에는 약 34종 1200폭의 〈서방정토변〉 벽화가 전해진다. 특히 굴 전체가 아미타정토를 묘사한 변상도로 채워진 제321굴은 백미다.



아미타정토 아름다움을 그려내다

돈황 막고굴의 〈서방정토변〉은 수량이 가장 많은 경변도 중 하나이다. 이 〈서방정토변〉은 남북조시대 등장했고, 당(唐)대에 접어들면 많은 양의 경변도가 그려진다. 돈황 막고굴에 현존하는 〈서방정토변〉의 종류는 약 34종 1200폭이 전한다. 〈서방정토변〉의 출현시기부터 완성시기까지는 약 150년에 걸쳐 그려졌다. 돈황 막고굴의 〈서방정토변〉은 4세기 중엽부터 단독상과 설법도의 예가 현존한다.

초기에는 병령사의 제169굴 〈무량수불설법도(無量壽佛說法圖, 424년)〉에서 벽화로 출현했으며, 막고굴 제285굴(538年)이 대표적이다. 또 6세기 중엽~7세기 말에는 〈서방정토변〉이 출현하게 된다. 맥적산 제127굴 〈서방정토변〉, 소남해석굴(小南海石窟) 중굴(中窟)의 서쪽 벽면에 새겨진 〈관무량수불경변(觀無量壽佛經變)〉, 소남해석굴 동굴(東窟)의 서쪽 벽의 16관 부조, 남향당산석굴(南響堂山石窟) 제1굴 전실(前室)의 동굴 문 위쪽에 조각된 〈서방정토변〉, 돈황 막고굴 수대 제393굴 서쪽 벽의 전면의 〈서방정토변〉, 초당대 19개 동굴에 그려진 〈서방정토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돈황 석굴 초당대(618~707년)의 44개 동굴 중, 19개의 동굴에서 〈서방정토변〉이 발견되었다. 대다수 〈서방정토변〉은 전체 벽면에 벽화가 큰 화면에 그려져 있다. 〈서방정토변〉의 구도와 내용은 이전 시대의 수대 〈서방정토변〉을 계승하고 있다. 8세기 초가 되면 성당시대(705~786)에 개착된 80개의 동굴중 20여 개의 동굴에 〈서방정토변〉이 현존한다. 대부분은 대칭적으로 '미생원(未生怨)' 이나 '십육관(十六觀)' 의 도상을 도해했다. 이후 이러한 형식의 〈서방정토변〉이 계속 성행했고, 송대까지 이어졌다.

아미타정토신앙은 서력 기원을 전후해 서북인도에서 발생, 북인도, 서역을 거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전파됐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모든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됨으로써 불교는 글을 아는 일부 귀족층만의 신앙이었고 서민들은 접근할 기회도 갖기 힘들었다. 정토신앙은 일반 서민에게 경전을 알지 못해도 불교를 신앙할 수 있게 깨우쳐줬다. 신라시대 원효 대사의 "나무아미타불 만 염불해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정토신앙 포교의 절정이다. 중국에서 정토신앙은 정토교를 널리 보급한 선도(613~681)의 뒤를 이은 법조(?~821), 현종(712~757)이 활약한 초당대인 7세기에 가장 융성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용문석굴의 명문에서 말해주고 있다.

돈황 막고굴에는 초당시기에 그려진 제321굴 〈아미타정토변상도〉가 전체 벽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극락과 그곳으로의 왕생사상(往生思想)에 관해 설한 경전은 〈아미타경(阿彌陀經)〉,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의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서방정토의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장엄, 청정,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①)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321굴 북벽 동측에 그려진 〈아미타정토변상도〉. 초당 시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321굴 〈아미타정토변상도〉의 누각 모습.

극락은 부처님의 거주처다. 그중 아미타불이 거주하는 서방극락은 무한한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충만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한 곳에서 아미타불은 이미 십겁(十劫) 이전에 성불해 지금도 상주하며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러한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세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아미타불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무량수불(無量壽佛)이고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일컬어진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정토인 그곳에 가려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예경하고 염불(念佛)하면 아미타불이 와서 극락으로 데려간다고 한다. 이쯤되면 누구라도 아미타불을 믿고 염불하지 않을수 없다.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장엄에 관해 설하고 이곳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을 칭명염불해야 한다. 그럼, 경전에서 설한 서방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돈황 막고굴 속 '서방정토변상도'들
4세기부터 조성, 34종 1200폭 전승
제321굴 전체가 '아미타정토변상도'
평화롭고 조화로운 서방정토 묘사해

윗부분 푸른 하늘은 하늘과 물이 마주하고 있으며, 열 분의 비천이 다양한 형태로 날고 있다. 구름과 안개를 타고 있는 불보살은 시방 불보살이 무량수불 법회로 가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다. 하늘은 대칭 구도로 분포돼 있는데, 세 개의 누각, 1불 2보살 조합의 네 그룹, 그리고 주존 아미타불의 머리에 있는 보개 바로 위 즉, 전체 화면 위의 정 중앙에 정거천(淨居天)을 묘사하고 있으며, 구름이 그려지고 그 위쪽 2층짜리 누각에는 부처가 기대앉아 있고, 전각 아래에는 두 보살이 서 있으며 전각 앞에는 7주의 도량수(道場樹)가 있다. 양쪽에는 각각 1불 2보살이 1조를 이루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좌우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좌우 양측에는 헐산정(歇山頂, 용마루가 휜)의 누각이 있는데, 2층이며, 너비는 3간으로 상층과 하층 사이를 처마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런 화법은 초당 시기 벽화에서 보이며, 하층 두공(斗拱)은 붉은 난간으로 둘렀으며, 상하층 기둥 사이에는 문이나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발이나 장막(커튼)을 쳤다. 월대 바닥은 꽃무늬 벽돌(타일)을 설치했는데, 당대 관습이 그러했다. 중간층의 양측 누각 위쪽에 법회에 임하고 있는 부처들이 그려져 있는데, 부처님이 뭇 보살을 거느린 출행도이다.

중앙 주요 부분은 서방 3성으로 중앙에 앉아 있는 무량수불은 부좌(趺坐),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은 유희좌(遊戲坐), 그리고 뭇 보살을 양측으로 나누어 배열했다. 벽화 윗부분 푸른 하늘은 물과 맞닿아 있고, 10명의 비천이 천태만상으로 날고 있다. 하늘에는 상서로운 구름, 꽃 기둥, 자명고(自鳴鼓) 등 총 14종류 36개의 악기가 있는데, 돈황 벽화 중 악기가 가장 많은 그림이다.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생(笙) △누계고(鷄婁鼓) △요고(腰鼓) △타고(鼉鼓) △답랍고(答臘鼓) △나발 △필율(篳篥) △요고 △생 △비파 △횡적(橫笛) △양대뇨(兩對鐃) △배소(排簫) △쟁(箏), 1불 2보살 혹은 1불 2제자 조합의 4개 그룹이 있는데, 상운을 타고 와 법회를 듣고 있으며 하늘 층을 대칭 구도로 5개의 전각이 있다. 좌측에는 상운 위에 한 건물이 지어졌으며 중앙에는 보개(寶蓋), 쌍수(雙樹)의 위쪽에는 백색 서가(書架)가 있으며, 내부에는 10개의 작은 탑이 있다. 세 번째는 화면 윗부분 정 중앙의 누각으로 부분적으로만 노출돼 있다.

이 변상도에는 총 6개의 2층짜리 누각이 그려져 있었는데, 모두 좁고 우뚝 솟았으며 상층과 아래층 사이에 중간 처마가 없으며, 주망(柱網)에는 평좌(平坐)를 설치했다. 이러한 누각 형태는 일본의 많은 사원에 있는 종루, 장경각 및 문루와 유사하다. 2층짜리 누각이 푸른 하늘 구름 위에 떠다니는데, 이는 불국세계의 건축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층과 하층에는 난간과 평좌가 있고, 처마가 위로 치켜졌으며, 오포작두공(五鋪作斗拱)이나 사아정(四阿頂), 사척호선(斜脊弧線) 등은 당대의 건축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공허의 구름 위에는 3개의 전각이 병치되어 있으며 '凸' 모양 건물의 배치형식은 초당시기 사원 건물 배치의 주된 조합방식이다. 하늘을 나는 비천이 가장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1불 2제자가 상운을 타고와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백색 보각(寶閣) 앞 보개 위에는 한 비천이 꽃을 뿌리고 있으며 또 다른 비천은 거꾸로 날고 있다. 얼굴은 청중을 향해 거꾸로 뒤집혀 있으며 머리는 아래로, 다리를 위로 뻗어 두 발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됐다. 뻗은 손은 물체를 잡고 있다. 이 두 비천을 함께 보면 보당(寶幢) 좌우에서 날며 춤추는데, 자세를 서로 호응하며 매우 역동적이다. 1불 2보살이 상운을 타고와 법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긴 표대(飄帶, 리본)는 바람에 펄럭이고 벽 전체가 바람으로 가득하다. 아래 꽃 기둥 옆 보개 위에는 한 비천이 합장하고 내려오고 있다.

월대에는 불, 보살이 서 있는데, 작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작은 다리 아래에는 푸른 파도가 일렁이고, 물결 패턴은 섬세하며 움직임과 변화로 가득한데, 물결의 위치에 따라 유속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빠르게 씻겨지는 수직선이 있고, 소용돌이치고 방황하는 수평 줄무늬가 있으며, 일부는 온화하고 거의 흔들리지 않으며, 일부는 가벼운 소용돌이를 친다. 연못의 연꽃에는 화생동자가 앉아있고 우측의 누각에는 천인이 기둥에 기대어 있으며, 연못에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손을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연못 양쪽에 월대(月臺, 플랫폼)와 누각은 모두 연못 위에 지어졌으며, 연못에는 가릉빈가, 오리, 화생동자, 원앙 및 연꽃 등이 생동하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부처님을 즐겁게 하고자 노래하고 춤을 추는 비천들의 무리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색채가 이미 퇴락했다.

〈아미타정토변상도〉에는 천인악대(天人樂隊)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도 있으나 이처럼 공중에 악기들이 흩날리는 광경을 묘사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는 묘법은 정토의 황홀한 장면을 더욱 극대화하는 기발한 착상이 아닐까?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귀에는 감미로운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Monthly Bultube

아버지가 보실만한 불교 유튜브 없나요? ○○지역에 가는데 인근 사찰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 없을까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많은 이들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람하는 유튜브 영상 속에서 참신한 불교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 키워드별로 소개해본다. 사찰에 가기 힘든 불자들이라면 스마트폰으로라도 부처님 세상에 한걸음 다가가 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애 니 멀

KBS동물티비
주인과 종교가 다른 강아지가 있다?!
youtu.be/dCyG5z-Jgcs

SCAN ME

최근 주요 방송사들은 자사의 방송 콘텐츠를 재방영하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하고 있다. 다양한 불교 관련 콘텐츠도 이에 따라 올라오곤 한다.

2010년 7월 방영 당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KBS 생생정보통의 '주인과 종교가 다른 강아지, 개는 불교, 주인은 기독교' 영상이 올해 6월 8일 유튜브로 다시 업로드 됐다. 이미 조회 수 130만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다.

신통방통 천재견으로 불리는 진도 강아지 신덕이가 일요일 교회에 가는 주인과 헤어져 인근 사찰에서 법회를 본다. 입으로 목탁을 치고, 스님 옆에서 절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지 법일 스님은 "전생에 불제자가 아닌가 싶다"라며 웃는다. 여기에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는 모습이나 주인의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는 모습 등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 2.1만회를 받은 이 영상 댓글에는 "법당에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니 진짜 놀랍다", "진짜 똑똑하다. 종교까지 갖고 있는 강아지는 처음 본다", "스님의 절에 맞춰서 목탁치는건 사람 못지 않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추 모

BTN불교TV
'영원한 국민 MC 송해,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
youtu.be/moanMV2iJH0

SCAN ME

6월에는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소식도 전해졌다. 바로 KBS '전국노래자랑' 최고령 MC이자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방송인 송해 씨가 6월 8일 향년 95세 일기로 별세한 것이다.

평소 "불교방송 개국 준비 때 전국 사찰과 암자를 다 돌았다" "돌과 소나무 어디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전국을 순회했다" "효도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불교 가르침의 화두이면서 모든 대중가요의 가사이고 노래"라고 밝힌 그의 별세에 불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BTN불교TV는 6월 8일 故송해 추모 특집으로 '영원한 국민 MC 송해,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 영상을 게재했다.

불교TV 측은 생전 불자 코미디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송해 씨의 못다했던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소개했다. 영상에서는 땡볕에서 사회를 본 일화부터 불자로서 매 순간에 임한 자세 등이 얘기가 나왔다. 사회자 이상벽 씨는 "청년시절부터 불자연예인으로써 포교에 앞장섰던 송해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댓글에는 "송해거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부디 극락왕생 하셔서 그 곳에서 음성공양 많이 하시고 부처님 세상에 편안하소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 34년을 한방송에서 오래오래 하시지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전국민 희노애락의 삶을 함께한 송해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등이 달렸다.

음 악 회

BBS불교방송
영탁이 영탁했다
youtu.be/xltrqicr9BE

SCAN ME

함성과 박수 소리에 전율이 난다. '산사음악회에서도 이렇게 환호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영상이 있다. 바로 5월 28일 열린 화계사 이주중건 5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에서의 트로트가수 영탁의 공연이다.

화계사에서 이주중건 500주년으로 마련한 기념주간에는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을 비롯해 회주 성광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서 법회를 열었고, BBS싱싱라디오를 비롯해 토크쇼 '세계는 한송이의 꽃', 불화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하지만 이중 가장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단연 산사음악회였다. 불자방송인 박재민의 사회로 열린 음악회에는 영탁, 박현빈, 바비킴, 최예림 등이 나서 신명나는 무대를 펼쳤다.

불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등장에 무대는 사찰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열기로 넘쳐났다. 특히 불자인 국민트로트가수 영탁이 1만명이 모인 가운데 펼친 '누나가 딱이야' '막걸리 한잔' '찐이야' 등 메들리가 압권이었다. 열정 넘치는 무대에 화계사 전각 난간에도 팬들이 올라가 환호를 보냈다.

BBS불교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5월 30일 클립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소개했다. 조회수는 10만회, 좋아요는 7100회를 기록했다. 또 다른 클립 영상인 '엔딩요정 나가실게요~ 킹탁'은 6.5만회 조회를 기록했다.

637개 댓글 중에는 "영탁이 영탁했다", "화계사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무대가 될수 있다니" "만명이 넘는 팬들 대박이다. 화계사에 지진난줄 알았다고" "서울에 가면 화계사 한번 가보고 싶다. 산사음악회도 이런 재미가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뇌 과 학

유나방송
김성철 교수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youtu.be/t88Evl8ow-M

SCAN ME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찰나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수행과정에서도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의문일 것이다.

정목 스님의 유나방송이 진행하는 '유나아카데미'의 '불교와 뇌과학' 강연은 과학에서 '마음'의 정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불교에 귀의해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성철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뇌과학과 불교의 접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이번 영상에서 '불교와 뇌과학으로 풀어본 마음의 정체'를 통해 서구에서 말하는 분별적 생각과 반야지혜의 차이점을 밝히고 우리의 각 기관의 인식, 특히 뉴런다발인 뇌의 작용과 주관과 객관의 발생여부 등을 고찰한다.

어려운 뇌과학에 대하여 불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내는 모습에 '좋아요'는 1000회를 받았으며, 댓글에는 좋은 평가가 뒤따랐다.

댓글에는 "보리도 차제론 중관학 등 강의를 자꾸 찾아들을 수 밖에 없다. 쉽게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설명이 있을까 싶다" 등 댓글이 달렸다.

강 연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 선불교연구소
자현 스님은 왜 출가했을까?
youtube.com/shorts/OuDT1wbf8rQ?feature=share

SCAN ME

어느 분야에서나 박학다식으로 유명한 이들이 있다. 자현 스님은 박사 학위만 십수개에 달할 정도로 불교계서 대표적인 전방위 불교지식인으로 통하는 이다. 강연으로 유명한 자현 스님에게 그 핵심을 추려내 빠르게 전하는 유튜브 쇼츠만큼 좋은 전달 매체가 있을까 싶다.

이중 6월에 올린 쇼츠 영상 '자현 스님은 왜 출가했을까?'는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했다. 스님은 여기서 "부처님은 좋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 왜 출가했을까란 생각을 화두로 잡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답은 '자유'였다.

평소에도 이른바 '쿨'한 대답을 하는 스님은 영상을 통해 파격적인 얘기도 했다.

스님은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출가를 결심했다"며 "출가는 완성이 아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속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바로 이어 스님은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방해한다면"이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스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출가동기들 중 나만 남았다고도 했다. 끝으로 스님은 "여러분들도 '부처님은 왜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출가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제일 좋은 행복조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영상을 마무리 했다.

댓글에는 "솔직 담백하다" "속이 후련하다" "자유의지 때문에 출가한다는 점에서 공감" 등이 달렸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모집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전화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전화 1670-2010

滅聖諦만이 第一義諦

〈멸성제〉 〈제일의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㉕ 멸제(滅諦)

"세존이시여,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 가운데에서 세 가지는 항상함이 없는 무상(無常)인 것이요, 한 가지만 항상한(常)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세 가지 진리(三諦)는 유위(有爲)의 모양(相)에 들어가는 것이니, 유위의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항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함이 없는 것은 바로 허망한 법이며, 허망한 법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非諦), 항상한 것이 아니고, 의지할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제(苦諦), 집제(集諦), 도제(道諦)는 제일의제(第一義諦)가 아니며, 항상한 것이 아니며, 의지할 데가 아닙니다."

사성제 가운데 무상(無常) 유상(有常)으로 각 제(諦)의 성격을 밝힌 대목이다. 고제(苦諦), 집제(集諦), 도제(道諦)는 항상함이 없는 것이고 멸제(滅諦)만이 항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멸제(滅諦)를 제외한 3성제(三聖諦)는 유위의 모습이라 하여 최후의 궁극적인 진리(第一義諦)가 아니니 의지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정제의 설명과 다르게 각 제(諦)의 성격을 분석하여 유위의 모습과 무위의 모습으로 나눈 특징이 보인다.

사성제는 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불교의 인생관이나 생활관을 사성제를 통하여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법문이다. 특히 불교의 시작이 고(苦)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고제(苦諦)의 인식이 중요하다. 사성제(四聖諦)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후 5비구를 위하여 처음 설한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도 하지만 불교의 모든 수행관이 이 사성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화엄경〉 안에도 '사성제품'이 있다. 특이한 점은 〈화엄경〉의 '사성제품'에서는 세계마다 다른 사성제의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사바세계를 비롯하여 밀훈세계(密訓世界), 최승세계, 이구세계, 풍일세계 등 시방으로 전개되는 10세계마다 10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소개한다. 고(苦)를 죄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고 가시(刺)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 현실을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고(苦)에는 싫어하는 감정과 공허하다는 느낌의 두 가지 뜻이 포함된다고 한다. 사정제의 마지막 '멸(滅)'이 이른바 소멸인 멸인데 이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고(苦)는 열반의 반대말이 된다. 열반에서 얻어지는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전부 고(苦)인 것이다. 경론에 따라서 고(苦)의 설명이 차이가 있다. 보통 4고(四苦), 8고(八苦)로 고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18고설(十八苦說)도 있으며 〈유가사지론〉에서는 110가지의 고를 나열하고 있다. "모든 것은 고(苦)다(一切皆苦)"를 삼법인(三法印)에 넣기도 한다.

이러한 고(苦)의 개념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무자성(無自性)이나 공(空)이라는 말이 나와 고(苦)도 공한 것이고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이라 고정적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하여 고(苦) 속에도 낙(樂)이 있고 번뇌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설이 나오기도 했다.

'유위의 모양'이란 생멸인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멸제를 제외한 앞의 삼제(三諦)는 유위이고 멸제(滅諦)만 무위라는 말이다. 유루(有漏)와 무루(無漏)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따라 생멸변화를 갖는 것을 유위(有爲)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무위(無爲)라 한다. 허공이나 열반 등을 무위법이라 한다. 무위법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사상(四相)을 떠나 있는 것이다. 〈승만경〉의 이 대목의 주장은 멸제(滅諦)만이 무위라는 것이다. 대승의 수행이나 선종의 수행에서도 무위심을 강조하였다. 조작하는 마음이 아닌 함이 없는 마음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무주상' 법문처럼 상(相)이 없는 수행이 이루어져 모든 집착을 떠나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해야 도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에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을 본분의 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무위의 마음이라 했다. 어떤 격식을 넘어선 일상의 모습을 수행과 연결 지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써온 말이 무위심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 공덕·형상 떠올리세요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㊽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 수행을 할 때도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염(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은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음탕한 욕심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손히 공경하면 곧 욕심이 떠남을 얻으며, 만약 성냄과 분심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것이 떠남을 얻으며, 만약 어리석고 미련함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이 떠남을 얻느니라"고 한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염불하면 그 공덕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멀리 여의고 괴로움을 벗어나 복락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이르기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것들의 큰 위엄과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 넉넉히 이익 되게 하는 바가 많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항상 응당히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고 관세음보살님에겐 신통의 힘이 크기 때문에 염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형상

불자 여러분! 염불 수행을 할 때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구족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상염불을 할 때 관의 대상은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관할 때, 칭명(稱名)하면서 앞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의 원만한 상호를 관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광명으로 내 몸을 비추는 형상을 관상하면서 칭명염불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떠올리면서 염불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관상염불은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수승한 공덕과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칭명 염불하는 것입니다.

관상염불의 경전적 근거

불자 여러분! 이 관상염불(觀像念佛)이 탄생하게 된 것은 〈대보적경〉에 전거(典據)를 두고 있습니다. 〈대보적경〉에서 "부처님의 인행시(因行時) 가운데 대정진보살로 있었을 때 비구가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발심하고 출가하여 모직물에 그린 불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관찰하였다. 이 그린 불상을 관찰하여 여래와 다르지 않게 하여 다섯 가지 신통을 성취하였고, 보광삼매(普光三昧)를 얻어 시방의 부처님을 친견하였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관상염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관상염불(觀想念佛)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과 공덕상 중에서 한 가지의 상(一相)만을 관하는 염불 수행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신(全身)의 모습을 관하는 염불 수행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을 관하는 관상염불 수행법은 〈관불삼매경〉에 전거(典據)를 두고 있습니다. 〈관불삼매경〉에서 "부처님께서 부왕(父王)을 위하여 백호관(白毫觀)을 설하셨다. 다만 미간에 있는 백호상을 관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마치 가을 달과 같고, 열 가지 위엄을 성취하고 내외가 통명(通明)하여 유리로 만든 통(筒;대롱)과 같으며, 또한 그믐밤에 밝은 별과 같이 관하여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를 막론하고 90억 항하사 미진수겁과 같은 많은 생사의 죄를 멸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라고 설한 내용에 근거하여 탄생한 염불 수행법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㉕ 고귀한 구함의 경 2

침묵이 곧 '스승'이다

"(라마뿟따가) '존자여, 이와 같은 존자를 동료 수행자로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행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알아 깨달아 성취하여 주장한 그 가르침을 존자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습니다. 존자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그 가르침이 내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한 가르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는 가르침을 존자가 알고 또한 존자가 아는 그 가르침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처럼 존재 역시 그러했고 존자처럼 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우리 둘이서 이 무리를 수호합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웃다까 라마뿟다는 나의 스승으로서 오히려 제자인 나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나에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머무는 한, 그의 가르침은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수행승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곳을 떠났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묶임을 보시고 출가하시어 두 명의 스승을 찾으셨다. 첫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성취하셨고, 두 번째 스승 웃다까 라마뿟다에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성취하셨다. 찾고, 구하는 한 성취가 존재한다. '내가 묶여있다'는 말과 '내가 성취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무언가를 좇는 한 그 성취가 다시 묶임이 되는 것을 바로보기 어렵다. 스승을 찾는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성취에 머무는 한, 싫어하여 떠남, 사라짐,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의 참뜻을 알 수 없다. 성취는 누가 이름하는가? 성취가 끝이 없듯이 의식 또한 끝이 없다. 의식은 거친 것을 쥐었다 놓고, 덜 거친 것을 쥐었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 세계'를 쥐었다 놓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세계'를 쥐었다 놓았다 이름하지 하지 않고도 미세하게 쥐고 있다. 없는 손으로 쥐고 있는 줄 모르고 쥐고 있다. 환의 세계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높이 올라보아도 그것은 그저 환의 세계일뿐이다. 이렇게 알면 '아, 이것이 환이구나' 할 뿐, 환의 세계를 성취했다는 말도, 그 환의 세계를 어떤 세계라 따로 부를 이름도 필요치 않다.

삼라만상은 환이다. 환을 환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적정처가 존재할 수 없다. 한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낱말들이 떠다니는 그곳이 바로 적정처임을 바로보기 위해서는 성취하고 구하는 자가 침묵으로 사라질 수 있어야 한다. 침묵이 스승이고, 침묵이 곧 '스스로'이다. 환의 세상에 환으로 움직이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나'라고 부를 수 없어 안팎이 따로 없이 고요할 때, 그 모름의 침묵이 완전한 자유가 된다. 삼라만상 속 몸과 마음에 갇혀 생각과 느낌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 싫고 좋음에 묶이는 것을 싫어하여 떠날 수 있다.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내가 아님으로 침묵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다. 굳건함으로 지킬 수 있다. 아무 노력 없는 정진, 새김, 집중, 지혜가 바로 그 지킴이다.

뛰어넘어 보라.
걱정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근심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불안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초조를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태어남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늙음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병듦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죽음을 버리고 뛰어넘어 보라.
항상 지금이 뛰어넘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이 아닌 지금 뛰어넘어야 한다.
고요히 있든, 경계를 만나든 뛰어넘으라고 신호를 준다.
그 때 머뭇거림 없이 바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럼 모든 것이 끝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4호 | 17 | 전면광고

여러 하늘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될 수 있게 하며 출입이 자재할 수 있게 하여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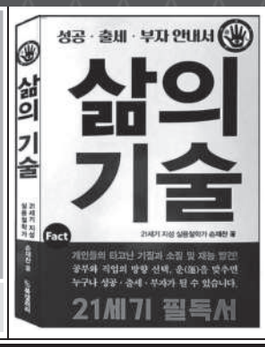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롱아를 치료해 드립니다.

010-9457-4311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남구
010-4773-0849

무보시 기도하며 같이 지낼 75세 이상 노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작은절 대원정사 주지
010-9010-5400

팔공산 천년고찰 기도하시며 스님 수발하실 보살님구함.
급여 상담후 결정
010-8833-44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직원 모집

전남 영암, 도림사 장군당
개인숙소 제공
월 250~300만원 이상
영암 버스터미널 5분거리
010-4554-112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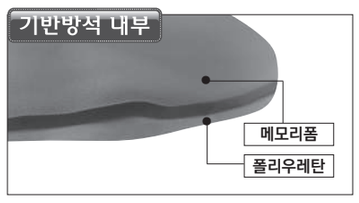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4호 | 18 | 전면광고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처럼 여기며 젊은 여인은 딸처럼 여겨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1,361㎡(411평)
- 건물 총면적 : 91.88㎡(27평)
- 가액 : 2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노스님 몸아픈 관계로)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교원안내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 상가2층 단독 60평
- 삼존불, 탱화, 인등,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3개
- 주차공간 좋음
- 가액 1억2천만원

010-2857-2811
010-7457-28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신탄진 톨케이트 인접
- 대지 : 53.5평
  1층 : 요사채 25평
  2층 : 법당 22평
- 주차공간 매우좋음
- 가액 : 3억 3천

010-9058-6163

도심속 예쁜 사찰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가액 5억(절충)

010-9286-1008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 사 채 : 20평
- 가액 : 4억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 가액 : 7천 5백(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87-5
- 대지 : 200평, 구건물 2동
- 임법당 20평, 방 3개
- 가액 : 9천5백만원

010-7795-985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2층콘크리트건물, 1층:방4,주방,욕실(40평) 2층: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5층석탑,스님 건강상급매
- 가액 : 3억5천

010-2611-65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둔산동 상가 2층 40평, 온돌
- 에어컨 · 법당형 1개, 룸형 2개 등, 11년째 운영중
- 보증금 1천만원, 월 45 만원 시설비 2천2백만원

010-5257-9731

체인점 상가주택

- 충남 아산 핵심요지 대도로 코너 체인점 임대, 상가포함공실無
- 대지 263㎡(80평), 건평 472㎡(143평)
- 융자 3억8천 승계, 인수금 2억8천
- 년 순수익 3천3백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2평, 법당 : 30평 산신당 : 5평, 요사 : 방 5개 화장실 : 2개(외부1/내부1) 주차공간 많음
- 가액 : 2억 7천 (땅값만 받습니다)

010-7661-4060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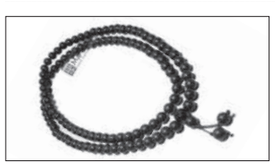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⑫ 식물

약이 되는 우리 곁 식물들

식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용되었다. 기원전 2600년 바빌로니아 및 수메르 사람들은 식물과 더불어 주문을 외우면서 질병의 악마로부터 환자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진흙조각에 남긴 유물 기록을 통해 밝혀졌으며, 기원전 2900~1900년 고대 이집트에서는 약학적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875년 발굴된 문서에 따르면 옛날부터 인간이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일상의 식물들이었다. 에버스 파피루스(Ebers Payrus)에는 700여 종의 약과 818종의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기원전 1500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서 많은 의약전 기록이 전해내려오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기원전 3000~2000년경에 생존한 것으로 생각되는 전설의 삼황오제 중 염제신농(炎帝神農)씨의 약용식물을 처음으로 연구하고 또 발견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 연구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정리된 서적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와 더불어 약용식물 발전의 기둥으로서 세계적 약용식물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병을 고치기 위한 약용식물 존재해

약차 수시로 마심으로써 독소 배출

옛날부터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었다. 흔히 우리 곁에 있는 식물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였으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행해져 왔다. 야생동물들 또한 병이 걸렸을 때 스스로 깊은 동굴 속 등을 찾아 물만 마시면서 단식과 특정한 식물을 찾아먹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닭들도 자기들의 속이 불편할 때 먹던 식물들이 따로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용식물들이 존재했다.

역사는 약학의 역사 또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임상 즉 체험을 통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백야초를 발견하고 연구해서 의약의 길을 개척하여 365종의 약물을 상약(上藥) 중약(中藥) 하약(下藥)의 3품으로 나누고 상약에는 보약류 중약에는 보통약, 하약에는 치료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시대부터 약용식물의 약효론적 체계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신수본초, 증류본초, 가우본초를 시작으로 많은 본초서가 출판되고 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적 해석이나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서 현대 의약품이 발견 제조되고 있다. 양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원형 그대로를 비롯하여 엑스제 과립제 정제 및 드링크제 등의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과 독일 등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없이 양산되는 천연비타민제는 생약을 착즙하여 원액을 급속 냉동 · 해동시켜 만든 비타민제를 한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다. 지금의 생명공학 바이오 의료분야의 수많은 연구 실적도 식물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세종 때 의서 전순의의 의방유취, 향약집방서, 이제마의 본초학, 허준의 동의보감, 선조 때 의림촬요, 천원옥책, 본초, 소문 등의 83종 고전 의서들과 상한론 매경 등 한 · 당에서 명까지 70여 종의 의방서가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물의 자원 수는 총 4500여 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는 약 40만 종의 식물이 인간과 함께 지구에 공존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가운데 천연물화학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약용식물의 종은 더욱 늘어 날 것이며, 더욱 신비로운 약초들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병의 원인 요소와 치료 요소, 즉 병의 원인이 되는 기관과 고치려고 하는 약 사이에 피상적으로 닮은 점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하였다. 북미의 어떤 원주민들은 외관상 기생충과 닮은 식물의 뿌리를 찾아 장기 내에 있는 기생충을 구제하는 약으로 사용하였다. 베로니아의 꽃이 눈과 비슷하다 하여 눈병 약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또 애기똥풀의 황금색 액즙 등을 황달병에 듣는 약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약초의 적용법을 표징설(表徵說)이라 한다. 한방에서는 증후학(證候學)이라 하여 약의 색과 맛 등을 각각의 내장기관에 관련지어 병을 다스리기도 하였으며 마음의 화병을 다스리기도 했다. 늘 강조하는 동양의 음양오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극적색은 심장과 소장, 백색은 폐와 대장, 황색은 위장과 비장, 청색은 간장과 담, 흑색의 약초는 신장과 방광을 다스렸다. 이와 같이 식물의 생김새와 색깔, 향기, 효능 등으로써 우리 몸의 정기혈을 보양하기도 하고 정기혈의 흐름을 흩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이 아닌 우리 토양의 우리식물로 법제가 된 우리의 탕약과 우리의 약차들의 우수성을 믿고 절기의 운행을 거스르지 않는 음식의 섭생과 음용법이 지금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의 성분은 식물의 약용으로써 정화와 세포의 복원이 무리 없이 생성된다. 계절의 변화를 따르고 피고 지는 식물의 생멸과 사멸, 그건 자연계의 보존과 복원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차를 수시로 마심으로써 몸속에 쌓인 독소는 배출되고 우리 몸의 세포는 재생되어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⑫ 간수

버려지는 간수가 '미네랄'

소금은 다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르다. 소금을 만드는 바닷물, 제조방법, 성분, 맛, 입자의 크기 등의 차이는 그것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 맛의 차이와 그것을 먹는 사람의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 각국은 각자의 소금 만드는 방법과 성분을 갖게 되고 또 고유의 음식 맛을 갖고 있다.

소금의 맛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3가지로 요약이 된다. 하나는 소금을 만드는 바닷물이고, 다른 하나는 소금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의 성분과 양, 그리고 마지막은 소금 입자의 모양과 크기로 요약된다.

바닷물에 따라 소금도 달라진다. 바다마다 깨끗함이 다르고, 바닷물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도 다르다. 바닷물에 따라 미네랄의 양도 달라진다. 또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함량이 다르면 소금의 맛도 달라진다. 끝으로 소금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맛이 달라진다. 이는 녹는 속도를 달라지게 하고 맛을 결정하는 미각에 닿은 느낌도 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네랄의 양과 그 성분의 다양성이다. 이것이 달라지면 소금의 모양도 맛도 건강에 대한 기여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소금의 차이는 NaCl, 즉 염화나트륨의 차이가 아니라 미네랄의 차이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 소금의 차이는 결국 제조 방법 및 제조 원료의 차이에서 오는 미네랄 함량의 차이.

해수와 간수 성분 (단위 : g/L)

함유 성분	해수	해수농축 간수	이온막 간수
나트륨	10.06	38.09	14.83
마그네슘	1.24	63.92	58.08
칼슘	0.39	0.08	38.03
칼륨	0.63	17.75	24.54
염소이온	19.01	206.62	281.82
황산이온	1.87	74.28	0.00
합계	33.20	400.74	417.30

위의 것은 간수의 대표적인 성분만을 분석한 것이다.

미네랄 함량 다르면 소금 맛 달라

버리는 간수에 천연 미네랄 많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금의 미네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을까.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 경우 우리는 소금을 만들고 남은 물을 버리고, 또 소금에 묻은 것들을 '간수 빼기' 라는 이름하에 모두 제거해 버린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3년 묵은 소금, 혹은 2년 묵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만들어 가마니나 자루에 넣어 쌓아두면 소금이 가진 조해성(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녹는 성질)으로 인하여 가마니 속의 소금(이때는 소금 속의 마그네슘 성분을 말함)이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녹아내리는 것을 빼내어 버리고 남은 소금을 말한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소금 중의 미네랄(간수)을 빼버린 소금을 2년 혹은 3년 묵은 소금이라고 말하고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어렵게 쌓아두고 몇 년 몇 십 년을 기다리는 것 말고 간수를 빼버리는 간단한 다른 방법은 소금을 세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척염을 만드는 것이다. 소금에 물을 부어 소금이 더 이상 안 녹을 정도의 농도 즉 포화농도 이상의 물을 만들어 소금을 세척하고 씻어냄으로 인해서 소금 속에 포함된 일정 간수 성분과 불순물을 씻어 낸 소금을 말한다. 집에서 소금을 볶아 먹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제염이나 꽃소금 같은 것은 소금을 물에 녹여 불순물과 일정 성분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 시킨 소금을 말한다. 이 역시 일종의 세척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천일염은 세척단계를 거친다. 거치지 않으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식탁 소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애써 제거하려는 간수 성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불순물 즉 천일염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갯벌 성분 혹은 오염물질(이것은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은 일단 논외로 하자. 그렇게 애써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간수(일본어 니가리)라고 하는 미네랄 성분이다. 간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은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그리고 기타 미량의 미네랄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에 이온상태로 녹아 있는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 있는 미네랄 농축액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거의 모두 들어 있는 미네랄의 보고이다. 왜 이 좋은 미네랄 성분을 애써서 제거하려고 할까? 성분이 몸에 해로워서일까? 그것은 미네랄 성분이 갖고 있는 '맛' 때문이다. 간수 중에 대표적인 미네랄이 마그네슘인데 그 마그네슘은 안타깝게도 쓴 맛을 가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마그네슘의 쓴 맛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맛이 문제가 아니라면 간수 성분은 아주 유용한 미네랄이고 소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소금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소금이 미네랄이 많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다 빼버린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소금 만들기에 들어가면 그토록 자랑하는 중요 미네랄인 간수 성분을 어떻게 빼낼까 하고 궁리를 한다. 스스로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소금 제조 현장에서 펼쳐진다.

소금제조 방법이 다르면 성분이 다르다. 해수농축은 천일염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간수 성분이고, 이온막은 이온교환막을 이용하는 정제염의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진 간수 성분이다. 성분이 다른 이유는 제조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의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성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제조 현장의 간수 성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애써 버리려고 하는 간수의 실체는 바로 미네랄이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사먹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황, 그리고 수많은 미량 미네랄의 집합체가 바로 간수의 핵심 물질이다. 소금 제조 과정에서 빼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꼭 포함시켜야 하는 건강 물질인 것이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종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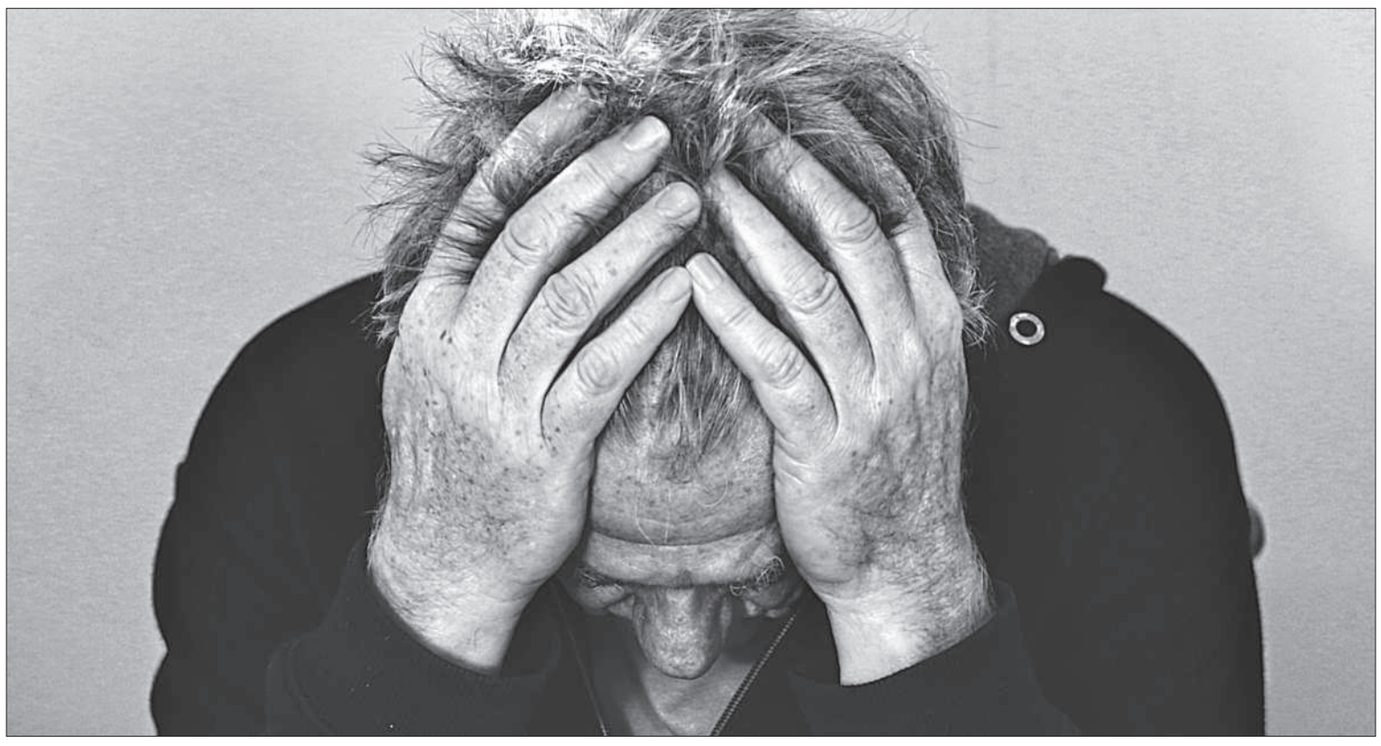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❼ 자살에 대한 불교의 관점



▶한줄요약
미래에 닥쳐올 고통을 미리 겪을 필요가 없다.

현재에 집중하면 행복해진다



최근의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자살률 1위이다. 2위는 리투아니아, 3위는 슬로베니아, 4위는 일본, 5위는 미국 순이었다. 한국과 함께 자살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3년 34.8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1.6명으로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접 국가 일본 또한 2013년에는 자살률이 21.2명으로 최상위권이었으나 최근에는 14.7명으로 꾸준히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폭 하향하다가 2018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타국가들의 자살률이 15명대로 진입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자살은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40대부터 50대까지의 사망원인 2위도 자살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라는 점이다. 삶을 누려보기도 전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종결해버린다는 점은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자살 동기는 '정신적 · 정신과적 문제'가 38.4%로 가장 높으며 '경제생활 문제' 25.4%, '육체적 질병 문제' 17%, '가정 문제' 7%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신적 · 정신과적 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3년 이후 경제생활문제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신과적 문제는 정신질환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울증이 있다. 자살과 우울증은 연관성이 높다. 아울러 자살동기의 2위가 경제생활문제라는 점에서 추측해보면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은 자살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국내 자살자들의 약 70%가 자살 당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우울하게 만드는가. 현시대의 행복과 성공은 부동산, 주식, 자산 등 자본과 물질로서 규정된다. 드라마, 영화, SNS에서는 고급아파트, 승용차, 해외여행 사진 등 부와 관련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현실 속 어떤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부와 성공의 이미지들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 거주지의 수준을 평가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점검한다. 만약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삶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까지 강제로 종료시켜버리기도 한다.

자살 연구의 선구자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론(Le Suicide)〉을 통해 자살의 요인을 우울증, 강박증 같은 정신질환 및 모방, 아노미(Anomie) 등을 제시했다. 모방은 '베르테르효과'로 표현되는 자살의 사회적 전염 현상을 말하며 특히, '아노미적 자살'은 뒤르켐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자살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이다. 아노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제, 정치 혹은 가치나 규범이 무너져 혼돈에 빠진 상태를 뜻한다. 한국의 경우 IMF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경쟁구조 심화, 양극화, 이혼율 증가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살률이 급증했다.

자살, 인지·미래추론 결과
사회적 좌절 등 자살 유발
매 순간 마음챙김 주효해

인간은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데 만약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적 계급이 하락하면 주거, 여가, 소비 등 자신이 기존에 누리던 욕구들을 줄이고 절제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지위가 하락한 이들은 새롭게 변한 상황의 밑바닥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황금빛 미래를 떠올려봐도 막막할 것이다. 이에 어떠한 노력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초라하게 쪼그라들어버린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팍팍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에서 홀로 느끼는 괴로움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며 자살을 택하는 사람에게 쉽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손쉬운 비판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로서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이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문제일까.

자살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로서 국내 자료에서 자살은 '고의적 자해'로 표기되는데 이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살은 '의도성', '살해'가 포함하며 관점을 넓혀보면 자살은 다른 종류의 살인이다.

무엇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살은 기본교리인 불살생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붓다 당시 교단에서는 안거를 행했는데 안거의 이유 중 하나는 우기 동안 작은 생물의 살생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불교는 인간, 동물, 곤충 등 그 어떤 생명체도 죽이지 말라고 강조하는 생명 존중의 종교이다. 불교는 계행을 강조하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계율은 불살생(不殺生)이다.

율장에서는 "만일 비구가 고의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주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 고 하거나, 혹은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찬탄하며 빨리 죽기를 권장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波羅夷)이니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바라이죄는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며 이를 범하면 교단에서 모든 자격을 잃고 승단을 떠나야한다. 이는 직접적인 살해가 아니더라도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살인과 동일한 죄로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그 어떤 경우라도 생명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는 계율에 어긋나므로 불교에서 자살은 용인되지 않고 살인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업론에서 보면 자살은 고통을 소멸시킨 행위가 아니며 죽음 이후에도 당사자의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업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네 가지 행위를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첫째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있다. 악의에 찬 몸의 행위, 악의에 찬 말, 악의에 찬 마음의 행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 고통스러운 감각적 접촉을 겪는다"라 말하며 업(행위)의 연속성과 부과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자살의 업은 본인만의 것으로 간직되어 흘러가지 않고 다른 업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인연법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뭇 생명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얽혀 공존한다. 예를 들면, 공연음란죄는 타인에게 직접 행하는 성범죄와는 달리 자신 혼자서 노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임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에 처해진다. 자살 또한 스스로에게 가한 행위이지만 누군가에게 목격되거나 뉴스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살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악업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살이 바른 생각과 판단에서 결론 내려진 행위 즉, 정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원인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에서 보면 어리석음과 성냄이 자살 및 살해행위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사실상 많은 경우 자살은 충동적이다. 충동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합리적인 사고 이후가 아니라 짧은 기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아울러 경에서는 "중생들은 가족, 재물, 건강의 잃어버림으로 죽은 뒤에 괴롭고, 비참한 지옥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벗들이여. 중생들은 계의 상실, 바른 견해의 상실로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 괴로운 곳, 불행한 곳, 비참한 지옥에 태어납니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자살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살인의 죄를 행함으로써 계를 상실한 행위이며 바른 견해의 부재로 인한 충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내생에 악도(惡道)로 이끄는 성질을 가진다.

자살 전문가 토머스 조이너(Thomas Joiner)는 금문교 자살 투신 생존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생존자는 "난간에서 뛰어내린 순간, 내게 있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으며, 다른 생존자는 "뛰어내리자마자 바로 든 생각은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였고 떨어지는 동안 정말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했다. 조이너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후회' 였다고 말하며 "투신한 순간부터 수면에 닿기까지는 4초 정도 걸린다. 그러나 그 4초 동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한다.

자살을 결심하는 것은 인간의 추론능력에 기인한다.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추론한다. 지나간 아픈 과거를 현재에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미래를 계산해보고 그려본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암담함에 사로잡힌다. 꿋꿋히 이겨내고 희망한 미래를 위해 다시 시작해볼까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하나 쌓아올려 전진하는 과정이 힘들고 괴롭고 지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돌고돌다보면 '이제는 못하겠다. 나는 끝났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미 지난연재에 상세히 살펴보았듯이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으로는 마음챙김(sati, mindfulness) 명상이 있다. 마음챙김은 아련한 과거의 일, 불안하거나 황홀한 미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순간순간 흘러가는 '바로 지금'의 삶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정한 과거의 기억이나 추론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떠올리면 슬픔, 불안, 분노 등의 감정과 연결되어 부정적인 정서에 휘말리게 된다. 부정적 정서를 작동시키거나 특정 사고를 떠올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지 않고 걷기, 먹기, 호흡하기 등 일상의 행위들을 단순히 감각하고 몰두하는 것이 마음챙김의 속성이다. 마음챙김의 순간에는 오로지 '지금' 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픈 과거도, 암담한 미래도 없다.

때로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한다. 산 입구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정상을 보고 저곳에 올라가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면 할수록 몸은 고되고 숨이 차오르며 마음은 더 급해질 것이다. 심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결국 등정을 포기하게 된다. 포기의 이유는 시선이 정상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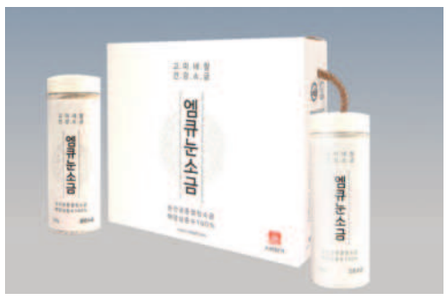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 보배가 능히 이 세상을 다 쥐고도 남는다는 걸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의 영혼은 의식으로 뭉쳐진 것이니 바로 그 영혼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아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다스리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한생각의 도리를 실천한다면 우리 역사도 바꿔 놓을 수가 있고, 우리 삶도 경제도 기술도 지금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생각이 모든 것을 바꿔서 정말이지 신성하게, 땅도 넓어질 수 있고, 뺏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마음도 넓어질 수 있고 우리 살림살이도 풍족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고 평등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의리와 도리, 도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아서 인간의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손바닥 안에 넣고 연꽃의 향기를 두루 피울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덮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생각만은, 빛보다 더 빠른 이 마음 한생각만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깨친다, 안다 이런 걸 떠나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 자체가 내 한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참자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자기를 내동댕이치고 저 바깥에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오. 아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남편을 잘되게 해 주시오. 부모를 잘되게 해 주시오.' 하다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가 빠지면 기도 넣어 줄 것이고, 모든 점에서 다 그렇습니다. 병이 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파워를 일으키니까 세상만사가 다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이 파워가 일어나니까 다른 쪽도 파워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뭐.

요새 그런 것 잘 보시죠? 그런 것도 다 마음, 마음,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면 내면세계 그 의식들의 마음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지배인을 따라 줍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실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의 골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의 조사들, 천백억화신들, 일체제불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서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집에 전화를 놔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보배에 의해서 내가 수억겁을 거쳐 온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미래가, 바로 정신세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차 지나간 뒤에 차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겁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버스 타는 사람은 차를 놓치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고거 하나로만 비유해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날까지 추운 거를 춥다고 해 본 일도 없고 더운 거를 덥다고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여름이라고 고정되게 항상 장마가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가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 장마도 없습니다. 괜찮았다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가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름이 아주 무덥기도 하고 덜 덥기도 하고, 겨울이 덜 추울 수도 있고 더 추울 수도 있고,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북극 남극이 여러분의 입과 직장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잡수시죠? 잡숫고 그 잡수신 게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잡숫고도 그거를 붙들어 놓고는 그냥 애를 쓰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냥 놔뒀으면 소화가 돼서 그냥 나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보다 돈 쓰기가 더 어렵고, 어떠한 것이 사는 건지 그 맛을 모른다면 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내 형상을 해 놓고 빌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시주를 하고 그러는 것이 공덕이 크게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깨쳐서, 너희들의 물리가 터져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나가라.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마음, 마음,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죠. 마음 병을 고쳐 주시려고 49년을 설하셨고, 마음 병을 고쳐 주려고 한 사람이 있어도, 거지가 앉아 있어도 설하셨습니다. 이 허공에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나무 한 그루, 이파리 하나가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생 아닌 것이 어디 있겠으며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겠죠. 여러분, 바깥에서 기복으로만 나가는 것을 지금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패를 모셔 놓고 빌고 있습니다.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부모든지 다, 죽으면 위패에다가 붙여서 그냥 꽉꽉 묶어 놓죠? 그런 것부터 좀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아니, 잡숫는 것도 그냥 있지 않은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좀 깨이고 깨여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말하고 금방 돌아가고 금방 돌아가고, 걸어왔는데 발자취가 하나도 없고, 가도 간 것이 없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발과 종점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즉, 끝 간 데 없는 한마음으로서 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추저분하게 생각해서 음식물이나 놓고 빌고 절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치고 마음이 폭넓고 지혜로우며 물리가 터지게끔 자기가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앉는 것도 선이요 서는 것도 선이요 눕는 것도 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참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인연에 따라서 또 만날는지 모르니까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가 없으니 인연이라는 말은 해서 뭘 합니까? '한마음!' 그러면 됐지요,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인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만나면 인연이요, 말하면 인연이요, 그저 아버지 만나면 자식이 되고 또 자식 만나면 아버지가 되고, 부인 만나면 남편이 되고 온통 그렇게 바꾸어지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지요. 이름이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입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여러분한테 설해 주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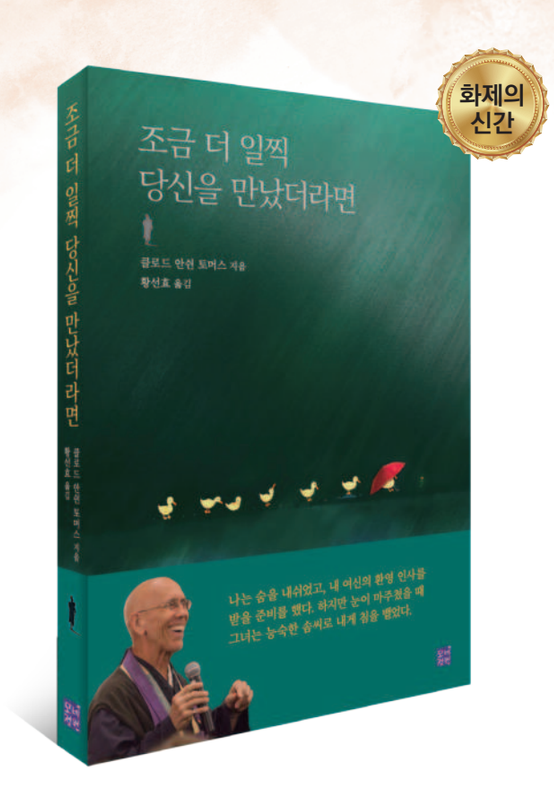
그러니 부처님께서 "야! 죽는 것이 사는 거냐, 사는 것이 사는 거냐?" 하고 물으셨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대답 안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게 몸뚱이로 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요. 마음은 영원한 거지만, 영원한 그 주장자가 없으면 도로 환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놔 주는 사랑이 멋진 사랑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생을 할 수도 없지요. 이끌어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지금 죽으러 가는 데 말입니다, 죽어야 또 새로 탄생을 하죠. 그죠? 이치를 보면.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죽으시라 이겁니다. 허허허. 몸뚱이를 살려 두고 마음이 죽으라 이거예요. 마음이 죽어서 죽은 세상에 가면 전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눈 뜨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고 안에서 보면 바깥이 내다보이는데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심안의 도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보배고 얼마나 귀중한 공부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곤 바깥으로만 살려 달라고 합니까? 글쎄, 얼마나 모자랍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습니다. 나도 모자라는 사람이니까요, 하하하. 생각을 해 보세요. 금방 했다가 금방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자꾸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에 왜 걸립니까? 골이 비었습니까, 걸리게?

또 여러분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집이 여러분을 따라갑디까? 금은보화가 따라갑디까? 몸뚱이가 따라갑디까? 형제나 자식, 부인, 아니면 남편이 따라갑디까? 모두 화장터까지밖엔 안 가 줘요. 그리고 보물은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아요. 또 집은 대문 밖에만 나섰다 하면 내다보지 않는다구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고, 거기서 알고 있는 무상한 그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 그걸 좇아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요, 세계를 조화롭게 해서 평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급하니까 건둥건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둥건둥한 데에서 단 하나둘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세요. 건둥건둥했지만 아주 우리에게 밀접한 인간 마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한다,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등 모두, 이것은 일체 만법에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만 '너는 왜 나가서 자고 안 들어왔느냐.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너는 빌어먹기밖에 더하겠느냐. 배울 시기에 못 배웠으니 너는 만날 노동이나 해야지.' 이러고 그냥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나는 말로 해서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를 아십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리고 전구는 저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어디 한 군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스위치가 두 개 켤 거, 세 개 켤 거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전체의 스위치는 따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이다 뭐다, 이 전구다 저 전구다 따로따로 생각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저 마음의 주인공과 둘이 아닌 까닭에 이끌어 주고 또 집에 들어오게 하겠지. 당신밖엔 없어. 당신밖에 믿을 게 없어. 내가 누굴 믿어? 허공을 믿어, 이름을 믿어?' 하고 진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아프고 죽고 하는 그 다섯 가지는 누가 대신 못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주인공에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이렇게 묶는 것은…, 아, 여러분이 살면서 겪어 보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교자상 하나를 차려 놓고요, 몇 분만 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 초대받지 못한 분이 노하셨단 말입니다. 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도 또 '요놈, 두고 보자.' 이러거든요, 허허허.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그릇 놓고 전부 청하자. 그러면 뭐, 날 나쁘다 좋다, 덜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그뿐인 것을…. '한마음' 해 놓고 '주인공' 하면 한마음이 모여서 기둥이 돼 가지고 하늘을 꿰고 땅을 디뎠는데 뭐가 탈이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를 잘못해서 탈이 나고 뭐가 잘못해서 탈이 나고 조상이 잘못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탈이 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도리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안 들어온다 누가 안 들어온다 이러는 것도 말로 하지 말고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저 애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남편도 안되걸랑 '한마음 주인공만이 우리 남편을 이끌어 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놓으세요. 그렇게 안으로 찾는 거는 공덕이 되지만 바깥으로 아무리 돈을 놓고 기도를 해 보고 해 보세요, 공덕이 되나.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기도로는 아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모두. 한번 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다면 내가 머릴 왜 깎아요? 네? 내가 골이 비었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할 거를 아, 지금 진실한 말만 해도 다 못 할 텐데, 아니, 왜 가짜 짓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골이 빈 짓입니까. 그리고 괴롭고요. 돈 벌려니 괴롭고, 돈 봉창에 넣으려니 괴롭고, 넣으면 넣은 대로 괴롭고. 아이구, 이거 얼마나 골 빈 짓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참, 여러분한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살아라.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밖에 감사한 데가 없다." 이러는 것은 '재산을 버려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누가 돈을 다 버리랬나요? 올바로 쓰는 것이 벌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같이 가 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쓸 데다 쓰고 적절히 산다 이겁니다. 손을 펴고 오므릴 줄 모르면 반병신이죠? 또 주먹을 쥐었다가 펼 줄을 모르면 또 반병신입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줄 알아야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구요, 불자! 뭐,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불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불(佛)'이니까, 바로 여러분 몸은 '자(子)'니까 불자지요, 불자. 그대로 불자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죠.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듯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게 본래자성불이라는 겁니다. '내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병고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낫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고서 감사한 것도 거기요, 모두 거기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가시다 보면 바로 감사하다고 할 놈도 없고 감사를 받을 놈도 없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서없이 말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하하….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생각은 있겠죠.

발이 많이 달린 돈벌레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걸림 없이 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다리가 많은데 이날까지 걸림 없이 다녔거든요. 하하하. 그런데 그 돈벌레가 '다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게끔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이거는 모두가 한 다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가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요것조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마음',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한마음 주인공' 이러면 됩니다. 그럭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골수의 뜻을 아실 겁니다, 아마. (중략)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 보배가 능히 이 세상을 다 쥐고도 남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만공봉의 연꽃은 부처님의 설이지만, 깊은 물의 용무는 그저 한바다를 들이키고 토하고 들이키고 토하고, 내고 들이는 데에 그것이 바로 문수, 법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소립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법이 되고, 마음을 내면 몸은 움죽거리는 거니까 화신이죠. 자꾸 변동해 가면서 움죽거리니까요.

그래서 변동해 가면서 움죽거리면서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보현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보십니까? 지신도 나요 용신도 나요,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바로 나 아닌 게 없습니다. 신중도 나요 약사도 나요 부처도 나요, 모두 나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한 거죠.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무(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했다고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니라' 했던 겁니다.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불교를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길러 주세요. 어디 나가실 때는 냉장고 문에다가 편지를 붙여 놓고 가 보세요. 종이에다 뽀뽀를 해 가지고 "아무개야, 널 사랑해.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넣은 거 꺼내 먹고 너 요렇게 요렇게 있어." 그러면 그 글을 읽고는 '호호호, 엄마도!' 그러고선 이탈되지도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주 착실하고 즐겁게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쓰신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불어넣어 주지도 않고, 뿌리를 싱싱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만날 잎만 붙들고 가지만 붙들고 흔들어 봤자 낙엽만 지죠. 그냥 화가 난다고 가지를 꺾어 버리고 이파리를 떼면서 온통 야단을 하니까 그 자식은 그렇게밖엔 될 수 없죠. 장관을 해먹을래도 부모들 때문에 못 해먹게 되는 수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진실히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여자가 나가서 난봉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남자가 난봉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보, 좀 피곤하셨겠소. 그러니까 이거나 잡숴 보쇼." 그러고선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니, 꽃이 많은데 말이오, 나비가 한두 군데 뭐, 이쪽저쪽에 가서 앉는데, 그것도 꿀 때문에 그러는 거지 꿀이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지요. 하하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버리고, 다 홀딱 내버리고 몸까지도 내버리고 갑니다. 더우면 시원한 것, 추우면 뜨뜻한 것 입혀 가면서 씻어 주면서 발라 주면서 온통 쓰다듬고 했는데도 몸이 자기 좇아가던가요? 안 좇아가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다 벗고 갈 몸뚱이, 한 발 한 발 디딜 몸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나 잘하세요.

요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는 깡통끼리, 또 자식과 부모 깡통끼리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딪치지…. 아, 소리가 얼마나 나요, 깡통이? 넝마는 넝마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만날 끼리끼리 만나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은 은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나고 넝마는 넝마대로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그럴 일이라면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그러세요. 그까짓 거 얼마나 살다가 갈 거라고 그렇게 애탄지탄 덜그렁대며 살아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놔 주는 그 사랑이 멋진 사랑이죠!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절대 믿질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조상의 묵은 빚을 갚을 것이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 그렇게 극매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주!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를요. 감사합니다.

>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살아라.
>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 거기밖에 감사한 데가 없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28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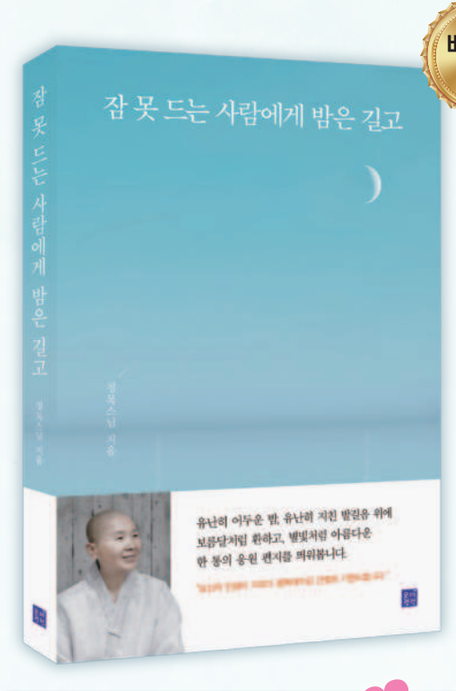
베스트 셀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삼척동자도 알지만 어려운 것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학문 · 벼슬에 교만했던 백낙천 거사
도림선사에 한가지 핵심가르침 물어
'칠불통계' 설하며 평생 의지 당부해
평이한 법문에 실망감 드러낸 거사에
"다 알아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일침
개인적인 고통에만 천착해서는 안돼
백낙천 교만·무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당나라 사람인 향산거사 백낙천은 당송팔대가에 꼽히는 유명한 문장가이며 정치가였다. 그는 학문에 자신이 있고 벼슬도 높아진 50대 초반 항주자사로 부임하였다. 자신이 부임한 항주의 진망산에는 도림 선사라는 덕망이 높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시곤 하는 까닭에 새둥지에서 지내는 듯 하다고 하여 조과선사(鳥窠禪師) 또는 작소선사(鵲巢禪師)라고 불리었다.

선사의 소문을 들은 백낙천은 선사의 도력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을 먹고 스님을 찾아갔다. 마침 그 때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는 스님을 보고는 문득 "스님 계시는 곳이 너무 위태롭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선사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위태롭네"라고 하였다. "스님께서는 나무위에서 위태롭지만 저는 땅을 딛고 있는데 뭐가 위태롭습니까?"라고 하니, 선사께서는 백낙천의 학문과 벼슬에 대한 교만함을 꿰뚫어보시고 깨우침을 주려 말씀하셨다. "세상의 지식과 벼슬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 번뇌가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쉬지 않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선사를 시험하려는 조금의 치기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선사의 이 한 말씀에 산산이 흩어져버리고 말았다.

백낙천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선사께 가르침을 청하였다. "제가 평생 의지할 법문을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에 선사는 칠불통계(七佛通戒)를 설하신다.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基義 是諸佛敎)'

특별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너무나 평이한 법문에 실망하였다.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사께서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씀하셨다.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지."

백낙천과 도림 선사의 이야기는 신도들의 법회 때 자주 인용하곤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인생이 안정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항상 안정된 직장과 주거, 안정된 건강, 안정된 인간관계를 바라며 살아간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에 안정된 것은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 자신도 함께 휩쓸려 변해간다. 쉼 없이 변해가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다. 고통의 바다(苦海)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치 큰 거울에 자신과 타인이 동등하게 비치는 것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누구나 평등한 줄 뻣속깊이 알고 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현실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매일 방송과 뉴스로 접하지만 늘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스쳐지나가곤 한다. 때로 가슴이 아프지만 시간의 흐름에 결국 잊혀져간다. 다만 나의 불행과 아픔, 슬픔, 괴로움은 타인의 그것과는 정말 다르다. 도대체 잊혀 지지도 않고 벗어나기도 어렵다. 세상과 타인은 안정된 것 같고 나만 안정되기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세상은 평등하다. 나에게만 가혹할 리가 없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세상을 배우면서부터 아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저 백낙천의 교만과 무지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⑥ TVING의 '돼지의 왕'

죽어서도 살아있으려면…

TVING의 〈돼지의 왕〉은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를 다룬 수작(秀作) 드라마이다. '학교폭력' 이라는 과거 축은 연상호의 원작에 충실한 반면, '복수' 라는 현재 축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추가되었다.

이 드라마가 서사 상 가장 빛지고 있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등 소설이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엄석대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통해 한국의 파시즘를 고발했다면, 〈돼지의 왕〉은 학교폭력에 항거하는 김철이라는 '돼지의 왕' 을 통해 사회권력의 대물림을 고발하고 있다. 드라마의 과거 축, 즉, 중학교 교실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개의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도살되기 위해 태어난 돼지의 부류이다. 개들은 소수이고 돼지들은 다수인 점, 돼지들이 개들의 하층계급인 점,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개와 돼지가 결정되는 점으로 봤을 때 개는 '금수저' 로, 돼지는 '흙수저' 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드라마 속에서 엄석대와 닮은 것은 김철이 아니라 반장(강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철이 동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회적 관계에서 무력해지는 설정은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과 유사하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캐릭터이다. 과거 축에서는 개들의 폭력에 홀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김철의 모습이 '돼지의 왕' 을 넘어서 '돼지의 신' 으로 비춰진다. 현재 축에서는 개들의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황경민이 가해자들을 차례대로 단죄하는 장면들은 속 시원하다.

드라마 속에서 가장 대비되는 인물은 김철과 박찬영이다. 김철은 칼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칼은 짐승이 되어서 개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김철의 권위는 문명화된 도구가 아닌 원시적인 태도에서 확보된다. 이는 김철이 싸울 때 두 주먹, 두 팔, 고작해야 허리띠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반면 박찬영은 전기충격기를 만들고, 김철을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계략을 꾸미는 지능적인 인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철은 원시적인 인물이기에 개들과 맞서 싸우지만, 박찬영은 문명화된 인물이기에 '개들의 개' 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드라마를 수작으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심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제도권 밖의 피해자에서 제도권 안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황경민의 모습에서 사회적 정의와 법적 정의의 간극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또한, 김철, 황경민, 정종석의 관계에서는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된다. 정종석이 김철을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는 이유는 김철의 죽음이 신화화돼 돼지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개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것은 정종석이 아니라 황경민이다. 반면 현재의 정종석은 김철의 꿈이었던 경찰이 되어 있다.

황경민과 정종석은 과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은 살아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김철은 죽어서도 살아 있다. 김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암언 스님의 말씀대로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리라. 임제선사의 말씀대로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리라. 〈소설가〉

社 說

'문화포교' 선례 남긴 회당문화축제

해마다 여름이면 울릉도에는 신명나는 축제가 열린다. 바로 '회당문화축제' 다. 이 축제는 진각종의 개종조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종사의 고향인 울릉도에서 2001년도부터 열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밀교 종단인 진각종이 주최하는 축제이지만, 종교색은 최대한 덜어내고 오로지 문화로만 채웠다.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울릉도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신 120주년을 맞아 열린 올해 회당문화축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협의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만에 재개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 했다.

6월 29일 열린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축제의 백미였다. 지역 어린이들의 공연부터 댄스 크루의 퍼포먼스, 국악 가수와 유명 밴드의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채워진 이날 콘서트에 지역 주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도 열광했다.

많은 지역 축제가 있지만, 회당문화축제처럼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을 받는 축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는 진각종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호흡했기에 가능했다. 그랬기에 19번의 축제가 이뤄질 수 있던 것이다. 회당문화축제는 명실상부 '문화포교' 의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진각종은 종조 탄생지 금강원의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며 '국민들을 위한 힐링의 장소로 조성하겠다' 는 계획을 내놨다. 문화와 힐링으로 일반인에게 다가겠다는 의미다. 한국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던 것은 일종의 문화가 됐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 그게 문화의 힘이다.

군포교 나선 예비 포교사에 박수를

갈수록 열악해지는 군포교 현장에서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포교사 1차고시를 합격한 예비 포교사들이 군포교 현장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포교사단은 포교 제일선에서 현대의 부루나존자로 불릴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1만3000여 명의 포교사가 배출됐으며, 현재 약 5000명이 활약하여 포교전법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들은 조계종이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에 합격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지역에서 팀 활동과 봉사를 거쳐야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비를 들여 진행한다. 아무런 보상도 없지만 포교 원력 하나로 임하는 이들이다.

출가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은 군포교에도 밀어 닥치고 있다. 군승 감소 속에 사실상 스님 역할을 보완할 자원은 포교사가 거의 유일하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군승법사들의 충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포교사들의 군포교 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인재육성이다. 스님 못지않은 수행력과 윤리성, 불교교리 지식을 갖추고 교화에 필요한 대화법을 숙지한 포교사가 늘어나야 한다.

수십년 군포교 역사에서 군포교를 지원하는 포교사들의 역할은 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땀을 흘려온 그들이 있기에 오늘날 한국불교가 있었다. 점점 어려워지는 청년장병 포교를 위해, 현장의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군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 7 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 수상작입니다

접 수 09.14(수) ~ 15(목)
전 시 10.26(수) ~ 31(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7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전통불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현대불화		
공예(조각)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1점당 5만원, 대학 재학생은 3만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문화재청장상)	1명	상금 700만원 상장 상패	
우 수 상	4명	상금 각 2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상패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 학생증 사본

공모요강·원서 배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9월 14일(수) ~ 15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시상식 및 전시

10월 26일 ~ 31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